

2000 학년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개혁주의 입장에서 임상목회 교육학연구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실천신학전공

이 홍 재

개혁주의 입장에서 임상목회 교육학 연구

指導 원 효 식 教授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認准함

2000년 월 일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 실 천 신 학 전공

이 홍 재

이홍재의 碩士學位 論文을
合格으로 判定함.

審査委員長 이은진 印

審査委員 이은경 印

審査委員 김남영 印

審査委員 이경희 印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2000 년 12 월

感謝의 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鍛鍊하신 후에는 내가 正金같이 나오리라.” (욥기서 23장 10절)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나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학업의 시간들을 뒤돌아보니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뿐이었습니다. 지금은 온통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지금껏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왔는데 주님의 일은 결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뒤 늦게 깨닫게 하심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종은 한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었음을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이들의 눈물과 기도의 덕분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선배들의 충고와 가르침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갓난아이를 지른자리 마른자리 갈아누이신 어머니 ! 35년 동안 음으로 양으로 기르시고 애타하시며 염려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나의 사랑하는 어머님께 한 없는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주의 종의 길을 올바르게 가라고 기도하셨던 기도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한 가정에 주님의 종이 만들어 지는것에 노심초사하시고 기대하셨던 그 모습 !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지금보다 몇배는 힘들고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야하는 일이 나의 목전에 있지만 그분이 하나님께 눈물로 심어놓으신 수고의 열매를 저는 거두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로 힘을 실어준 매형과 누님에게도 감사합니다.

또한 형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때때로 자신도 힘들면서 물질로 동역해 주었음을 이면을 빌어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신대원 졸업은 나에게 너무도 벅찬 감격의 순간입니다. 이젠 목회의 길을 한 평생 기도의 무릎으로 가리라고 다짐해 봅니다. 앞으로 목회사역에 평생동역자 김여회사모 그리고 4살이되는 큰딸 한빛이, 뉘을 맞이하는 아들 한영이가 무럭무럭 자라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 동안 애써 교수하여 주신 여러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 차

I. 서론	1
A. 문제제기	1
B. 연구범위와 목적	2
II. 임상목회 교육학의 개요	4
A. 임상목회 교육학의 개념과 정의	4
1. 정의	5
2. 내용	6
3. 목적	9
4. 교육과정으로서의 場: 病院	11
B. 임상목회 교육학의 본질	13
III. 자유주의 임상목회 교육학의 역사적 배경	16
A. 임상목회 교육학의 출현	16
B. 교육학의 선구자들	19
1. 윌리엄 켈러	19
2. 리처드 케벗	20
3. 엔틴 보이즌	21
IV. 개혁주의 임상목회 교육학의 인간관	23
A.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	23
B. 인간의 구조적 성질	28
C. 전인으로서 인간	32

V.전인 치유 사역으로서 임상목회 교육학	40
A.건강, 질병의 개념	40
B.성경에 근거한 전인치유	43
C.예수와 Logotherapy	46
VI.결론 및 제안	58
참고서적	61

I. 序 論

A. 문제제기

먼저 교수님을 통해서 임상 목회 교육학을 수강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의 임상목회 교육학의 현실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개혁주의 견지에서 볼 때에 초창기의 선구자들이 표방했던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21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임상 목회 교육”이라는 학문이 우리의 신학 교육 현장에 도입된 역사는 매우 짧고 전문가도 별로 없는 형편이라 여겨진다. 더욱이 목회 현장과 병원 선교에는 그 교육에 접한 목회자도 극소수에 불과한 현실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학교에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어쩌면 관심 밖의 영역에 속하였다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러함에도 미국의 신학교에는 신학생들이 종교 심리학, 목회 상담학, 목회 치유 등 목회 현장에서 요청되는 과목들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 곧 병원, 형무소, 소년원, 양로원 등에서 전문가들에게 이론과 실재를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졸업의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고 한다. 이렇듯 임상 목회 교육학은 시대가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총체적 전인 치유의 학문의 장(場)이 급속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인은 비록 임상 목회 교육학의 출현이 한 명의 ‘목사’와 두 명의 현직 ‘Medical Doctor’가 주축으로 신학 교육의 현장에 도입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기에 그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성서에서 증거하는 인간의 이해와 그리고 개혁주의적 임상 목회 교육학의 근거와 뼈대를 세우고자 한다. 왜냐하면 다변화되고 분업화된 현실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들에게 절실히 요청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총체적 전인 치유로서 이것이 급선무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일제 시대의 우리 조상들의 치유받지 못한 아픈 마음들 그리고 한 민족인 우리가 서로에게 총을 겨누었던 6,25사변 급기야 뿔뿔히 흩어진 이산 가족의 아픔을 어디에서 치유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지금 목회 현장에 치

유 받지 못한 영,육의 문제가 겉으로 표출되고 있다면 임상 목회 교육학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임상 목회 교육학에 견주어 인류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다고 자부하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치유를 뒤로 미루워 놓은 현대의학의 병폐가 급기야 하나님의 고유한 자리에 의학이 자리잡고 있으며 진정한 총체적인 전인의 치유와는 거리가 멀기만 하다. 그러므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성경에서 제시하는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살펴 보아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질병과 치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부분으로써 인간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살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전인치유 사역을 이해하고 성경적인 올바른 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 결과를 통해 이제 임상 목회는 단순한 일반적인 예배적 차원을 벗어나 병자들을 향한 목회자의 올바른 인간이해와 균형잡힌 치유사역이 이루어져야 함이 바람직하다.

B. 연구범위와 목적

우리 인간이 전인 건강을 위해서는 몸의 건강과 정신건강 그리고 영적인 건강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지향하는 바는 인간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신학교육의 Curriculum에 도입한 일명 자유주의 임상목회 교육학 이론의 출현을 살펴보고 인간의 상담의 영역은 폭 넓게 가질 수 있다. 또한 아울러 그 필요성은 동일하지만 인본주의적인 임상교육학을 여과시켜 성경에서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의 만민에 대한 상담과 치유에 대해서 뿌리를 찾고 또한 튼튼한 신본주의 임상목회 교육학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지에서 본 논문을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자 한다.

I 장 서론에서는 본 논문의 문제제기와 연구의 범위와 목적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장에서는 임상목회 교육학에 대한 개요로서 임상목회의 교육학의 개념과 정의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또한 임상훈련의 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자유주의 임상목회 교육학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개혁주의 임상 목회 교육학의 인간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Ⅴ장에서는 전인치유로서 임상목회 교육학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Ⅵ장 결론에서는 성경적인 임상목회 교육학에 대해서 주장하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전인치유 사역의 현장의 모범을 제시하고 개혁주의 임상 목회 교육학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임상 목회 교육학의 개요

A. 임상목회 교육학의 개념과 정의

임상목회 교육학이란 비교적 생소한 분야라 할 수 있으나, 포괄적인 면에서 볼 때 임상목회 교육학은 실천신학 중에서도 목회학의 한 전문 분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담학의 High Level에 위치해 있는 학문이 임상목회 교육학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인 생성과정과 목적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겠다.

임상목회 교육학의 사역은 신약시대는 물론 구약시대에도 있었다. 그런데 그 절정을 이루고 올바른 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사역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어떤 학문이나 이론에도 그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듯이 임상목회 교육학에도 뚜렷한 목적이 있다. 먼저 인간 및 하나님과의 바른관계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바른 이해가 없이는 올바른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따라서 임상목회 교육학은 전인격의 변화와 개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인식시켜 하나님 앞에서 건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임상목회 교육학이란 한 구체적이고 특수한 장(場)인 임상(臨床)을 통하여 행하는 목회자의 상담활동을 총 망라한 것으로 여기에는 성서에 근간을 두고있는 기독교적인 '목회'의 개념, 목회적 활동의 한 분야로서의 '상담'의 개념, 그리고 상담의 場이 되는 '臨床'(clinical)의 개념등 3가지 차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임상목회 교육학은 20c 초반에 발달하기 시작한 목회신학의 한 분과로 임상심리학이나 임상병리학의 발전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또한 이론적인 교육에만 치우쳤던 신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실제적인 현장 경험을 갖게 함에있다. 그리고 목회자의 자질을 수련하는데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개발 연구하게 되었다. 치유목회라고 불려질 수도 있는 임상목회 교육학은 목회 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개인적 혹은 집

단적 영혼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건전한 신앙생활과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

1. 임상목회 교육학의 정의

“ Clinical Pastoral Education ”의 어원적 의미를 살펴보면 먼저 임상(臨床)이란 병상을 뜻하고, 목회(牧會)란 목사의 업무로서 일정한 모임이나 무리를 위해 헌신하는 사역을 뜻하기에, 어원적 의미로 임상목회 교육학은 전문적인 사역의 ‘목사(π ο ι μ η; ‘먹이다, 보호하다)를 배출하는 것이다.

또한 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아보고 치료하는 총체적인 목회 활동의 일 부분으로서 그리고 때로는 어떤 구체적인 특수한 장(場)을 의미하기에, 반드시 병상의 환자에게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단순한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외에도 가족 관계나 대인 관계에 있어서 의식하지 못한 病理 現像에 대한 牧會 治療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하기 때문이다.¹⁾ 이러한 전반적인 사역을 체계화 시켜 커리큘럼화 시킨 것이 바로 ‘임상목회 교육학’이라 할 수 있다. 임상목회 교육학의 일반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 중에서 특히 육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상처받고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숙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숨은 가능성을 계발해 주는 것으로서 인간 대 인간의 관계, 또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문제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목회적 돌봄이 임상(臨床)이라는 특수한 장(場)을 통하여 타 멤버와의 협력적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임상목회 교육학은 20C 중반 이후에 생겨난 것으로 병자를 위해 목회와 의학간에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한 치료 기술이다. 그러면 전문적인 의술을 전혀 모르는 목사가 어떻게 병을 치료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임상목회 교육학을 정신 계통에만 국한하려는 학자들이 더러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임상목회 교육학의 올바

1) 경한수, 「임상목회」 (서울: 도서출판 세풍, 1994), P. 31.

른 모델인 예수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살펴볼 때 합당치 못하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친히 모든 병자 즉 육체의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정신병 환자 그리고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찾아가서 전인적인 치료를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상목회 교육학이란 의사로서의 목회자가 각종 불행한 삶의 패턴에 빠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총체적인 전인의 치유와 성장을 하도록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앞에서 살아가게 하는 전체적인 삶을 새롭게 영위하게 하는 목회활동과 학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임상목회 교육학은 아직은 생소한 분야로서 널리 보급되지 않은 커리큘럼이다.

20C 중반에 접어들면서 병자를 위한 목회와 의학사이의 관계가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있는 가운데 투르나이젠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의학은 종전보다도 더 신앙으로부터 병과 치료를 위해 숙고하여야 할 바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목회자는 특히 정신 치료의 영역에서 이 방면의 학문이 획득한 성과나 지식에 몰두하고 있다.²⁾

2. 임상목회 교육학의 내용

a. 교육 자료

임상목회 교육의 자료는 공부하는 사람의 직접적인 경험이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체험적 학습이 임상 목회 교육의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다. 무작정 경험을 해서 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배우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은 주체적으로 하지만 전문가인 감독자의 지도를 받으면 관찰하고 느끼고 대화의 내용을 정리해서 전문가의 지적을 받으며 동료들의 느낌과 의견도 들으면서 자신의 장점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단점은 수정 보완해 가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2) 에드워드 투르나이젠 「목회학실천론」 박근원역(서울:한국신학연구소, 1987), P.184.

임상목회 교육의 자료로서 대화록(Verbatim)의 타당성을 인정받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바쳐졌다. 경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객관적인 지적과 비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을까 하고 오랫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 검토한 결과로서 생겨진 것이다.

b.교육 과정

임상목회 교육은 환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경험'과 '그 대화의 내용을 정리하는 훈련', 그리고 대화록을 중심으로 한 '사례를 연구하는' 세 가지 과정으로 되어 있다.

임상목회 교육의 과정은 문제를 지닌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인간의 다양한 문제를 배우게 되고 어떻게 그 문제에 대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법과 기술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임상목회 교육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룹이 되어 함께 대화록을 발표하고 감독자와 동료들의 지적과 평가를 받는 것이다. 동료들의 비판적인 지적과 평가를 통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경험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임상목회 교육은 목회자의 인격적 성장을 가능케 하는 귀중한 교육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임상 목회 교육이 목사를 위한 임상적인 훈련과 실천적인 신학 훈련의 방법으로 보편화되어 있다.

임상목회 교육은 기초 과정과 고급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기초과정은 400시간을 단위로 한 교육 과정으로 대체로 12주간으로 되어 있고, 고급 과정은 감독자의 자격을 얻기 위한 것으로 수년이 걸리게 되어 있다. 기초 과정의 인원은 6명에서 12명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보통이다. 기초 과정의 교육 목표는 목회자의 전문적 자질을 개발하고 인격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데 두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목회자의 자기 자각과 자신의 목회 방법이 다른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을 탐색한다.

둘째, 임상적 학습 방법에 대한 이해와 활용의 방법을 개발한다.

셋째, 동료들과의 대결, 지지 및 해명을 통해서 개인의 통합적 능력을 목회적

기능에 적용하는 방안을 개발한다.

넷째, 개인적이며 전문적인 성장을 위해 감독자를 활용하는 일과 자신의 목회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

다섯째, 경험에서 얻어지는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의 증진과 안간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신학과 행동과학의 연관성을 탐색한다.

c. 교육모델

미국의 임상 목회 교육 협회(ACPE)는 아래 네 가지 모델을 그 임상 교육의 표준으로 제시하고, 거기에 따른 전문 지도자의 자격과 교육 센터의 인정 범위를 설정했다.

첫째 모델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1년의 과정을 마친 사람으로 목회에 자신을 길러 주기 위해서 한 학기 동안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다.

둘째 모델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안수를 받은 목회 경험이 있는 목회자들을 계속 교육의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모델은, 교육 센터에 와서 1년 동안 교육을 받는 것으로 이를 고급 과정(advanced course)이라고 한다.

넷째 모델은, 자질을 갖춘 교역자로서 임상 목회 교육의 감독자로서의 자격을 얻기 위한 교육이다.

d. 대화록 작성 방법

날짜 일련 번호

원목의 이름 면담 시간

방문 횟수 감독자

(대화록 오른쪽에 감독자의 평을 받기 위해 여백을 둔다.)

(1) Facts and Preparation

환자를 만나기 전에 수집한 자료와 자신의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것이다

(2) Observation

병실을 들어섰을 때 환자를 포함한 병실 내부 전체에서 느껴지는 인상을 정

리하는 것이다.

(3) Interview

면담 중에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과 느낌들을 최대한의 기억력을 동원해서 정확하게 기록한다. 환자와 주고받은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인 한숨, 몸짓, 손놀림, 눈물 등을 자세히 기록한다.

(4) Analysis

면담 중에 일어났던 구체적 사실을 검토하면서 왜 대화가 이런 독특한 형태로 전개되었는지 분석해 본다.

(5) Meaning, Theologizing

이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는가, 삶과 운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궁극적인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를 분석해 본다.

(6) Now What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e. 평가서 작성

(1) 중간 평가(Mid-Term Evaluation)

인격적 성장, 목회적 성장, 병원 직원과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감독자와의 관계,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자신의 느낌을 표현 할 수 있는 다음의 것을 준비한다.

(2) 최종 종합 평가(Final Evaluation)

시작할 때의 자신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 자신과 환자들, 자신과 동료들, 자신과 병원, 자신과 감독자, 자신과 교육 과정, 목회자로서의 역할³⁾

3. 임상목회 교육학의 목적

성경적 근거들을 고찰해 보고 또한 학자들이 정의한 임상목회 교육학의 목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요10:10과 엡4:13에서 찾을 수 있다. “주님이 온

3) 김기복, 「임상목회 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 전망사, 1993), PP. 79 - 85.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임상목회 교육학이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성경의 목적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초청하고 구원하듯이, 임상목회 교육학의 목적도 이것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임상목회 교육학은 고통중에 있는 영혼의 마음과 육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치료함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게 하는 것이다.

C.W.Brister는 임상목회 교육학의 목표에 대해서 10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 ㉠,사람들이 하나님과 접촉하는 것을 돕는다.
- ㉡,피상담자가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돕는다.
- ㉢,피상담자가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도록 도와준다.
- ㉣,대인 관계를 원만하게 하도록 돕는다.
-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 ㉥,피상담자의 자기 이해와 자기 용납을 증진시킨다.
- ㉦,피상담자의 결단을 돕는다.
- ㉧,피상담자가 참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위에 자신을 세워 나가는 것을 돕는다.
- ㉨,인간 개체를 넘어서 사회 질서 가운데 내재한 보다 큰 원인들을 지적한다.
- ㉩,희망을 갖게하며 미래에 대한 인생의 문을 열도록 도와 준다.

Howard Clinebell은 임상목회 교육학의 목표에 있어서 한 사람의 인격속에서 나타나는 성장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성장지향적인 면에서 언급했으며, 그리하여 모두 5가지 차원의 성장을 말하고 있다.

- ㉠,피상담자의 내적 성장과 치유
- ㉡,인간관계의 갱신과 성장 그리고 치유
- ㉢,생물계와 관계된 성장과 치유
- ㉣,조직이나 단체에 관련된 성장과 치유

㉔,영적인 면에서의 성장과 치유⁴⁾

이러한 차원들 중에 어느 하나에서의 성장은 나머지 차원에서의 성장을 자극하며 반면 성장이 어느 한 영역에서 장애를 받을 때 나머지 영역에도 장애를 끼친다. ⁵⁾한마디로 말해서 임상목회 교육학은 여러 가지 차원의 치유와 성장이 발생하도록 목적을 설정하여 그것을 성취하도록 피상담자를 전인적으로 돕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영적, 정신적, 육체적 손상을 안고 있는 환자들을 대면할 때 식상한 일반적인 신앙을 막무가내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여러 차원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에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도록 해야하는 식견을 제공하여야 하는것이 진정한 상담자의 자격을 구비하게 하는 역할이 또한 임상목회 교육학의 임무이다. 이러한 목적위에 임상목회 교육학이 서야 하겠다.

4. 교육과정으로서의 場: 病院

a 병원의 역사

임상목회 교육학의 場이 병원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초창기 임상목회 교육학의 선구자들이 현직 의사2명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주축이 되어 학생들에게 이론적인 신학교육의 커리큘럼을 바꾸어 체험적이고 실제적인 훈련의 장(場)으로 저들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출발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상목회 교육학의 실제적인 교육이 어느 한 곳의 획일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상호보완 협력의 사역이라는데 이해를 가지고 병원의 의료현장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임상목회 교육'의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목회 대화를 교육과정으로서의 훈련을 통해 목회의 기술을 향상시키자는 취지로서의 장(場)을 병원으로 택

4) C. W. 브리스터, 「현대인의 절망과 희망」 오성춘역 (서울: 홍성신사, 1989), 153-163.

5) 하워드 클라인벨, 「성장상담학」 김선도역 (서울: 도서출판 광림, 1990), P.24.

하여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도 1974년 처음으로 '임상목회 교육학'을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연구원을 개설하였다. 그리고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임상목회 교육학'의 이론과 실제적인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병원이라는 구조 속에서 병원장을 비롯한 의사, 간호사 및 사회 사업사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교육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훈련의 場으로서 병원의 전반적인 상호협력의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한 시대의 의료 행위는 그 시대 모든 문화의 반영으로 간주될 수 있고, 환자의 치료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문화권으로서의 사회가 환자를 어떻게 다루었으며 질병에 대해 무엇을 생각했는가, 특히 병원이 그 사회에서 어떠한 기능으로 발전해 왔는가를 이해할 때 그 문화를 알 수 있게 된다.⁶⁾ 따라서 병원의 최초의 역사는 B,C 1200년경 환자들을 위한 조직적 치료 기관으로 오늘과 같은 시설은 아니었으나 그리이스 신전이 그 기능을 담당했고 그 후 '히포크라테스'(b,c460-370)는 신앙과 철학으로부터 의학을 분리시켜 현대 의학의 합리적 기준을 제공하였다. 또 건강과 질병상태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역설, 의학 교육(medical training)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⁷⁾

현대적 개념의 병원은 처음으로 이집트, 인도 등지에서 발견되었고 특히 이집트에서는 사제가 직접 의사로서 활동했던 그리이스에 비해 의사라는 전문 직업이 존재하였고, 그 당시에 약물 처방, 제한된 외과 수술과 골절 봉합이 서어비스되었다.

중세 암흑기에는 과학적 지식이 발전하지 못하다가 르네상스 시대에 과학적 의학 지식들이 재 발견되면서 병원의 개념이 다시 종교적 색채에서 의학적 개념으로 바뀌어지고 의학이 종교에서 분리되었다⁸⁾는 사실이다.

힐트너는 말하길 병원이란 교회에서 되어지는 것보다 훨씬 자주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같은 길이의 시간에도 더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으며,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6) 허주, 「세계의학의 역사」 (지식산업사, 1987), PP. 13-18.

7) 김춘배, "병원사", 「병원관리」 연세대학교대학원 보건학과편, 1987, PP.

8) Ibid., P. 2.

상황은 사람들을 새로운 힘의 원천으로 향하여 마음 문을 열게 한다. 또한 목사만이 여기서는 사람을 돕는 유일한 직업이 아니라는 것, 의사나 간호사, 그 밖에 각종 전문 기술인들이 곤궁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협력 관계속에서 일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한다.⁹⁾ 이처럼 임상목회 교육학은 내담자를 위한 상담과 치유의 일들을 단독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에 교육과정의 훈련의 장으로서 병원과 협력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B.임상목회 교육학의 본질(Ministry)

1.Ministry

‘Ministry’는 내가 가르치고 나 자신을 위해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사역이 시작된다. Clinical Pastoral Ministry는 ‘깊이 들어주는 것’이 그를 받아들이고 돌봄의 전달에 있어서 열쇠가 되는 훈련이다.

치유를 도와주는 동질감을 형성하는 첫 단계는 그 상대방을 나와 같이 인정해 주는 것이다. 동질감은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함으로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는 “Ministry”는 어떤 변화를 조성해주는 것이다. 그 변화를 내가 어떻게 시도해 주는 것인가 하는 것이 내 사역의 열쇠이다. ‘Ministry’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안에 창조해주신 치유력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하고 편안하게 발견하도록 변화시켜주는 중개자 역할을 한다.

2.Identity(정체성): ministry의 기초

ministry는 관계를 형성하는 기술이나 훈련을 의미하는 그 이상이다. 항상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항상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을 하도

9)스위스 힐트너, 「목회 카운셀링」 마경일역(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86), P.82.

록 부름을 받았다. 기계가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다. ministry는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노력을 넓혀가고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ministry이다. 하나님은 아직도 다른 사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하신다. 복음서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훈련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음을 본다. 그러므로 ministry는 사명을 감당하여 가르치는데 있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나의 속에 또 나에게 훈련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에게 우월감이나 남을 판단하고자 하는 태도나 성향을 뿌리 채 뽑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성향이 내 속에서나 학생들 속에 있어서 남을 돕고자 하는데 장애 요인이 된다. 이것이 정체감을 형성하는 작업이다. ministry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자신이 의롭다라고 하는 감정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훈련이다.

3. Integrity(성실) (자기 보존성= The Will to be oneself)

Integrity는 좋은 의미를 지닌 정직하고 성실한 그러나 연약하고 흠이 있는 우리 모습 그대로를 의미한다. 남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이 만약 자신이 생각하고 또한 투사한 완전성이 우리와 동질감을 느끼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섬김의 도리를 잘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좋은 사람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해야 한다.¹⁰⁾

4. 자격요건

자격요건이란 그 사람이 맡은 일을 계속적으로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일이나 과제를 말한다. 우리가 그 과제를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 우리 일의 효과도 더 나타날 수도, 덜 효과적일 수도 있다.

10) 원효식 교수, 「임상목회 교육학 강의안」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PP. 9-11

첫째, 개인적인 자격요건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할 때 자신의 한계성이나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과 자신과 또한 이웃과의 관계형성을 잘 조화있게 하고 우리는 자아반영의 사람인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자격요건은 자신의 정서적인 생활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성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자각하고 감정이나 태도, 사물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수용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목회자의 개인적인 자격요건은 Stress속에서도 자신이 효과적인 일의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신학적인 자격요건은 목양 목회자가 기능적이고 적합한 목회 신학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목회현장에서 Chaplain은 신학적인 진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Chaplain이나 목회 사역자는 교회구조, 신학, 자신의 신앙, Group의 성격, 가치관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전문가적 자격요건은 목회자나 Chaplain은 인간관계, Leadership, 목양 사역의 신뢰받을 만한 능력을 가져야한다. 또한 새로운 정보에 민감하며, 신기술과 훈련을 터득하여야 할 것이다.¹¹⁾

11) Ibid ., PP.20-22.

Ⅲ. 자유주의 임상 목회 교육학의 역사적 배경

A. 임상 목회 교육학의 출현

임상목회교육(CPE)의 역사는 'Edward Thornton'에 의해 쓰여졌는데, 완성되기까지 10년의 세월이 소요되었다. 그가 1959년에 박사학위 논문으로 "A Critique of Clinical Pastoral Education" 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것이 1970년에 와서야 출판되었기 때문이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적 혁명에 기인한 사회적인 변혁의 물결을 타고 전통적인 미국 신학교 교육의 기초에 급격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임상목회 교육학은 전통적인 이론 중심의 신학 교육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것이며, 한편으로 의학 심리학과 사회 사업에 매력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목회의 실제적인 훈련을 위해 임상적인 방법을 적용할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1926년에는 예일대학의 위글 교수에 의해 신학 교육의 교과 과정 내용을 기능적인 교육의 원칙에 의해 재평가하는 모임이 있었고, 신학 이론과 실제적인 전문적 훈련의 균형 잡힌 교육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 졌다.

1920년대 말엽 하버드의 스페리(W.L. Sperry) 학장과 시카고의 학장이었던 매티우스(Shailer Matthews)는 전통적인 신학 방법을 배격하고 신학 교육의 전문적인 모델을 선택하기로 합의했다. 매티우스는 "인격의 문제를 다룰 때 정상적인 인격적 요소를 이해함과 동시에 병리학적인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신학에도 과학적이고 심리학적인 정확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포괄적인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독자 밑에서 임상적 훈련을 받는 일이 필요하고, 단순히 학점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며 직업적인 효율성을 위한 각 분야의 통합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통적인 신학교육에 대항한 새로운 교육 방법의 기초는 실용주의였다. 이것은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와 존듀이(John Dewey)에 의해 제창된 것으로 이는 사고의 산물이 아니다. 오히려 400여년간 서구 세계가 살아온 삶의 방식을 정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실제적인 것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경험을 탐구한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을 조직적으로 생각하게 한 것이다.

신학적인 자유주의는 신학교에서 임상목회 교육학을 시작하는 길을 열어주게 되었다. 시카고 대학 신학부, 유니온, 예일, 그리고 보스턴의 대부분 학교에서 임상목회 교육학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카우텐(Cauthen)에 의하면 미국의 자유주의는 신학적인 흐름에 세 가지 두드러진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첫째는 단절된 세계보다는 지속적인 세계를 강조하는 것이고, 둘째는 절대적인 신의 계시보다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셋째는 정적인 삶과 세계보다는 역동적인 것에 역점을 두는 것이라고 했다.

신학적인 방법에서 임상목회 교육의 창시자들은 경험 신학을 발전시키게 된 것이며 그들은 복음적인 자유주의자들이었다. 임상목회 교육학은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개인과 사회적인 경험에 대한 신뢰와 자연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역동적인 과정에 대한 열린 마음이 없었다면 결코 뿌리를 내릴 수 없을 것이다.

1910년-1912년에 걸쳐 전문적인 교육방법은 신학에서 의학으로 관심을 돌리게 되었다. 병원에 실험실이 설치되고 임상적인 훈련이 강조되었으며 강의 위주의 방법에서 사례 연구의 실제적인 방법이 학생들에게 부가되었다. 1924-1970년에 이르는 기간에 신학교육의 지도자들은 1912년 의학교육에서 일어난 변화를 신학교의 교육 과정에 적용하였다. 한 가지 틀린 점은, 오늘날 신학 교육에 대한 과학적인 도전은 자연 과학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행동 과학의 분야에서도 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임상 목회 교육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1934년에 발표된 마크 메이 보고서에서 지적된 적절하지 못한 신학 교육에 대한 문제들이 대부분 임상목회 교육을 통해 극복되었다. 메이가 강조한 것은 첫째로 신학 교육의 목적과 방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의학과 법학에서 발전된 것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목회의 전문화 영역에 침투하게 된 심리학과 사회 사업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

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론에만 치중했던 전통적 신학 교육에 종교 심리학과 사회학 및 사회 사업이 개입되면서 이를 종교 경험의 실제적인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 적용하게 되었다. 오하이오 주 남부에 있는 작은 신학교인 백슬리 홀(Bexley Hall)에서는 가장 최초로 임상 목회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따라서 임상 목회 교육학에서는 역사적으로 이 “백슬리 계획”(Bexley Hall Plan)을 최초의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놀라운 것은, 임상목회 교육학의 첫 단계가 Freud 정신 분석 이론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자이며 사회 문제에 민감하고 상상력이 풍부했던 현직 Medical Doctor인 캐벗은 최초로 의학 교육의 방법으로 신학 교육에 도전하게 되었다. 12)

임상 목회 교육학 훈련과정의 내용은 환자 방문, 사망자와 유가족들의 돌봄, 결혼 상담과 부모에 대한 상담, 그리고 노인 방문과 그들의 문제 협의 등 다양한 범위의 것이다.

초기 역사에 보면 임상 훈련 지도자들에 대한 의학적인 매력은 사회 사업에 대한 것보다 강했다, 한 가지 원인은 의사나 정신과 의사들이 사회사업가들 보다는 임상 훈련을 요구하는 목사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접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역사학자 Edward Thornton 은 1920년 임상 목회 교육학의 출현은 구약성서에서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과학적인 사람들이 선언하기를 “병을 고쳐 주시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했다. 의학은 과학을 간구했고, 신학은 종교를 간구했다. 사람들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의학 쪽으로 돌아섰다. 바로 치유를 가능케 하는 것은 과학이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바로 사회적인 변혁의 물결속에 많은 이들의 내면 세계에 문명의 굶주림으로 차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거대한 교회당은 건강의 신에게 예배하는 의학의 중심지가 되었고, 제사장들은 의사가 되고 정신과 의사가 되었다. 따라서 임상 목회 교육학은 종교적인 단체로서 교회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를 보장하려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임상 목회 교육학

12) 김기복, 「임상 목회 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 전망사, 1993), PP. 13-19.

의 지도자들은 정신적인 전인 건강을 위한 사람들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채워주지 못한다면 제단의 불은 꺼질 것이고 예배하는 집은 텅비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역사란 사회적 과정에 의해 형성되지만 동시에 독특한 개인들의 공헌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¹³⁾ 이런 차원에서 역사는 독특한 개인의 인격과 그들과 연관된 그룹에 의해서 설명 될 수 있는데 먼저 임상목회라는 목회의 한 場이 역사에 등장하기까지 기초적인 터전을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임상 목회 교육학의 선구자들인 두 사람의 Medical Doctor와 한 사람의 목사가 그들이다. 그러므로 본 논고자는 이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B, 교육학의 선구자들

1. 윌리엄 켈러(Willam S. Keller)

윌리엄 켈러는 임상 목회의 기반을 닦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오하이오 주 남부에 있는 작은 신학교인 백슬리 홀에서 시작된 백슬리 홀 계획에 참여하면서 임상목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후 켈러가 이 신학교의 학생 5명을 훈련시킨 것이 바로 임상목회의 효시가 되었다. 백슬리 홀 계획이라고 불리워진 이 프로그램이 점점 발전하면서 자유주의 신학교 계열에서 자리를 잡게 되었고 학교의 정규 과목으로 자리잡게 되면서 임상목회는 확고한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 이 계획은 단순하게 구성된 것으로 정신 병원에서의 사례 연구, 재판장에서의 인간 관계 문제, 공공 복지 프로그램 및 사회 위생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1927년에는 켈러의 계획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그때까지 켈러가 주관하던 이 계획이 남부 오하이오 주에 있는 성공회 사업부 산하로 들어가고 켈러는 사회 사업부 위원장이 되었다. 이때 켈러는 자신의 프로그램에 의학과 사회 사업, 신학적 목회 자료를 첨가하여 임상

13) Ibid ., PP. 20-24.

목회의 표준 프로그램의 기초를 닦았다. 1935-36년에는 임상목회에 있어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켈러의 프로그램이 하계 학교에서 2년 과정의 응용 종교 대학원으로 바뀌어 학교의 정규 학과목으로 채택되었다. 이처럼 켈러는 임상목회의 초기의 기초를 닦은 인물로, 현대 사회에서 목회자는 포괄적 지식과 경험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임상목회의 사회 사업적 측면에서 중요성을 일깨운 최초의 사람이다.

· 2. 리처드 캐봇(Richard C. Cabot)

1868년 5월 21일 메사추세츠 주의 브르클린에서 의사의 아들로 출생하였으며 1889년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후 의학을 공부하여 의사가 되었다. 의사가 된 후 모교인 하버드에서 의과 대학 임상 교수로 있다가 1925년 나이 50에 하버드의 윤리학 교수로 전공을 바꾸고 의과 대학 교수직에서 은퇴를 하였다. 1930년 1월 신학생을 위한 임상 훈련에 참여하여 위원장직을 맡게 되었다. 캐봇이 그의 일생을 통해 주장한 임상 목회 방법의 기저는 켈러와는 달리 치유의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었다. 캐봇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상호 교체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캐봇은 목회의 최고의 목표는 환자로 하여금 성장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환자를 격려하여 실패의 그림자를 넘어 성장하게 하고 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장의 폭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목회자의 최대의 역할이라고 보았다.

임상 신학이란 신학을 병상의 환자와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 노인들 그리고 범죄자들에게 적용하며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것을 의미한다. 캐봇은 목회자들은 임상목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캐봇과 함께 임상목회의 초석을 놓은 사람은 필립 길즈, 앤턴 보이즈, 러셀 디스이다.

보이즈는 케봇의 제자로 있다가 케봇의 임상 목회에 매료되어 일생을 케봇과 함께 하면서 임상목회를 또 다른 면으로 발전시킨 인물이고, 길즈는 케봇의 좋은 동역자로서 정신질환에 대한 임상목회에 함께 참여한 인물이다. 러셀 딕스도 케봇을 도와 임상 훈련 계획을 창설하는데 도와준 인물로서 그와 함께 '환자와 목회에 대한 기술'이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케봇의 특이한 점은 그가 복음을 사회화하거나 심리학화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의사는 의사로서, 사회 사업가는 사회 사업가로서 할 일이 있고, 목회자는 전인 치유라는 목회자 고유의 영역이 있다고 보았다. 케봇은 의사였지만 그는 임상 목회 분야에 있어 목표와 방법론적인 면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임상 목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데 기여한 선구자였다.

3. 앤턴 보이즌(Anton T. Boisen)

임상목회에서 가장 많은 기록을 남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수수께끼 같은 인물로 취급받는 보이즌은 1876년 10월 29일에 태어나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선생과 대학교 어학 강사로 사회 생활을 시작, 31세때 유니온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정식으로 목회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45세때 뉴턴 신학교와 하버드 신학부에서 종교 심리학을 공부하였고 이때 케봇을 만나 임상목회의 길을 걷게되었다. 그는 우스터 병원의 원목으로 있으면서 평생을 임상목회에 바치다가 1965년 10월 1일 세상을 떠났다.

보이즌의 자서전에 의하면 1898년부터 1935년까지 37년 동안 여섯 번이나 정신 질환을 경험하고 그 중 세 번은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보이즌은 임상목회의 교육과 종교 경험 그리고 임상목회와 정신질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훌륭한 업적을 남긴 선구자가 되었다.

보이즌이 임상목회 분야에서 쌓은 공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심리학과 신학의 주요한 문제인 종교적 이상, 느낌 그리고 행동 등에 대해서 실제적인 방법을 제공하였다. 둘째는 여러 각도에서 탐구들을 하나로

연관시키는데 결정적 공헌을 했다는 것이다. 셋째는 연필과 종이를 사용하는 기존의 방법에서 실제적인 연구 방법으로의 전환하였다는 것이다.¹⁴⁾

14) Ibid ., PP. 28-47.

IV. 개혁주의 임상목회 교육학의 인간관

A.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개혁주의 인간이해의 가장 특징적인 선언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의 과정을 통해 철학적인 이해를 시도하여 왔고 여러 신학적 작업이 있었다. 이런 역사적 연구들이 대부분 사변적이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했다.

따라서 논고자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형상인가? 를 성경에서 살펴봄으로 전인치유에 대한 이해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창세기1:26-28, 5:1-3, 9:6, 시편 8편에서 3번에 걸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창세기 첫 장은 사람의 창조의 독특성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다. 동물들은 “각기 종류대로” (21,24,25절) 창조함을 받았지만 유독히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다.

헤르만 바빙크는(Herman Bavinck) 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계시이며, 하나님의 덕성들과 완전하심을 반영해 주는 거울이다, 모든 피조물은 그의 측정과 뜻에 따라 이루어진 신의 생각의 구현물이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즉 사람은 하나님의 가장 높고 가장 풍부한 계시이다. 그러므로 온 창조 세계의 머리이며 면류관이다.”

창세기1:26절을 자세히 읽으면 주동사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의 창조는 그 자체가 집단적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식의 표현은 다른 피조물의 창조시를 묘사할 때 사용된 일이 없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

이 이 특수한 복수형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명을 시도하였다. 어떤 이들은 이 복수형을 가리켜 “장엄복수형” 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복수형이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복수형을 “장엄 복수형” 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근거가 희박하다. 또 다른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도 타당성이 없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상의했다는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한 천사가 사람을 창조할 수 없으며 더욱이 사람이 천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장엄 복수형” 동사는 하나님이 결코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이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는 분임을 뜻한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복수형”으로 존재하신다 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경륜과 의도가 사람의 창조를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사실은 사람 창조의 독특성을 묘사하고 있다. 사람을 창조할 때만이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 창조의 독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이 틀림없다.

“사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אָדָם이다. 이 단어는 종종 고유명사로 특정한 사람의 이름으로도 사용된다. 그러나 아담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의미한다. 독일어로 Mensch가 남녀 구별없이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것과 같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어로 Man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에 남자와 여자를 함께 지칭하는 것과 같다.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하여 사람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즉 남자도 사람이고 여자도 사람이며, 또한 남자와 여자가 모두 사람이라는 뜻이다.

창세기 1:26,27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담이라는 단어가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아담이란 단어는 종종 “인류”를 의미하기도 한다. 창세기 1:28절에 기록된 축복이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면 26절과 27절은 단순히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의 창조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온 인류 창조에 관하여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라 말할 수 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나오게 될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살펴보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형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מַלְאָכָה이며, ‘모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תְּמוּנָה이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두 표현구 사이에 접속사가 놓여 있지 않다. 본문은 단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70인경과 라틴어 역본은 이 두 표현구 사이에 접속사인 “그리고”를 삽입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치 두 개의 표현구가 서로 다른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된 것이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에는 “형상”과 “모양”이라는 표현구 사이에 아무런 의미적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는 어귀나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어귀는 표현양식만에 사용되고 있는 이 두 단어의 범으로부터 추출된 것이다. 창세기 1:26절에서 “형상”이란 단어와 “모양”이란 단어가 창세기 5:1절에는 “모양”이란 단어만 사용되고 있다. 창세기 5:3절에서는 이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으나 그 순서만 바뀌어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즉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이다. 창세기 9:6절에 다시 “형상”이란 단어만 사용되고 있다. 만일 이 두 단어가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두 단어가 서로 교체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 두 단어가 일반적으로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둘 사이에 약간의 차이점은 있다. 형상이라고 번역된 מַלְאָכָה는 “짜르다” “베다”라는 동사로부터 유래된 단어이다. 따라서 동물이나 사람의 모습대로 조각되고 있는 광경을 묘사하는데 사용되는 단어이다.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창조하는데 사용된 이 단어는 결국 사람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모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תְּמוּנָה는 “...과 비슷하더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로부터 유래하였다. 따라서 창세기 1장에 사용되고 있는 תְּמוּנָה란 단어와 결국 형상이란 단어는 곧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한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두 단어가

나타내고자 하는 사상은 바로 사람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며,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창조기사가 말하고 있지 않다. 다만 하나님과 사람사이에 어떤 특정한 유사점이 있다는 것은 본문으로부터 추측해 낼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26절로부터 온 땅과 동물들을 다스리는 일이 하나님의 형상의 한 측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치력을 행사하는 점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땅에 대하여 궁극적인 통치권을 행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27절로부터 추출해 낼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의 또 다른 측면은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가 남자와 여자사이의 신체적 차이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는 의미는 먼저 남자는 여자와의 동반자적 관계가 필요한 존재이며 또한 사람이란 사회적인 존재라는 의미이고, 마지막으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서로 보완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로이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교제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위탁하셨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사람이 인격을 소유한 존재이며 동시에 책임을 지고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책임적인 존재라는 뜻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반응을 하는 존재라는 말이며 궁극적으로 는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에게 대해서 반응하는 책임적 존재라는 사실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8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다. 이 축복문의 마지막 부분은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하자”는 26절의 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동사의 태는 2인칭 복수형태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첫 번째 부모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사람의 통치 권한은(26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28절)는 말보다 선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은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결혼제도를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녀를 낳아 온 땅에 편만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다. 또한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고 또 생물들과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약속하셨다. 이러한 말씀들은 축복의 말씀인 동시에 명령이요 사명의 위임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신 것이다. 이것을 문화적 사명 위임이라 일컫는다.

또 31절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 지으신 모든 것”들 속에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을 때의 사람의 상태는 부패되거나 오염되었거나 죄가 있지 아니하였다는 점이다. 사람은 순결했으며 죄가 없었으며 기록했었다는 말이다.

창세기 1장의 본문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며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닮았고 그분이 주신 명령을 통해 인간이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인간의 처음은 결국 선하며 질병이 없는 것을 통해 인간의 결과로 인한 질병의 발생을 잘 드러내어 주었다.

창세기 5장 1-3절에서 1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회상시켜 주고 있다. 창세기 1:26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두 개의 단어 중 오직 한 단어- *תמונתו*만 사용되고 있다. 형상이란 단어와 모양이란 단어가 교체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있기에 이곳에서 형상이란 단어가 생략되었다는 사실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

어떤 학자들은 인간이 죄로 타락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고 따라서 삶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창세기 5:1절은 분명히 인류

타락의 기사이후에 나온다. 게다가 창세기 5:1절은 아직도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로 부르고 있다. 이 당시까지 하나님의 아담으로부터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고 말하는 흔적을 본문에서 찾을 수 없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다고 말할 수는 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하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다.

3절은 아담이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창세기 1:26절에 사용되고 있는 두 개의 단어가 여기서도 순서만 달리했을 뿐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구절만 보아도 형상과 모양이라는 단어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 구절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아담의 아들 셋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그 대신 아담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고 기술해 주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바로 앞전에 아담이 타락 후에도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다면, 그의 아들 셋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더욱이 성경은 아담의 본성이 타락으로 인하여 부패되고 오염되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 이러한 부패와 오염을 자기의 아들에게 전가시켰을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추측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상실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인간을 생물학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전인적인 존재로 보아야 한다.

B, 인간의 구조적 성질

먼저 인간의 이해와 아울러 총체적 전인 치유를 위해서 사람의 구조적 성질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을 전제로한 심리학자들의 견해와 아울러 이에 대해서 논의된 이론의 유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Sigmund Freud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 갈등하는 모순된 구조로 이루어진 “육체적인 통합체”라고 표현한다. 인간의 정신 생물학적 기질을 ‘본능’(id), 인간의 의식적인(인지의 세계) 요인을 ‘자아’(ego), 인간의 도덕적, 사회적 국면을 ‘초자아’(superego)로 명명했다.

프로이드는 주장하길 “본능은 현실적이고 도덕적인 상황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자아는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되기를 노력함과 동시에 결핍이 따르는 긴장감을 없애려고 하며, 초자아는 모든 충동을 몰아내려 하고 가장 이상적인 목표 도달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한다.

2, Carl Jung

인간 성격의 주요 구조를 ‘자아’(ego), ‘가면 인격’(persona), ‘그림자’(shadow), ‘남성의 여성적 요소’(the Anima), ‘여성의 남성적 요소’(the Animus), ‘자신’(self)으로 명명했다.

3, Maslow

인간의 기본적인 기능의 욕구와 인간 계급의 욕구에 대하여 말하길 첫째 자아 성취의 욕구, 둘째 자기 보존에 대한 욕구, 셋째 사랑과 귀속의 욕구, 넷째 안녕에 대한 욕구, 다섯째 생리적인 욕구로 말한다. 사람은 환경에 의하여 위의 다섯 가지 욕구의 수준이 변할 수 있다.¹⁵⁾

이것들을 오늘날에는 공통적인 인간 심리의 구조를 파악하게 되었다. 마치 여러 층을 지니고 있는 한 나무를 절단해 놓은 것과 같아서 그 시작부터 성숙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보면 그 층들은 외부로부터 내부로 더 들어가서는 자아의 가장 깊은 층에 이르게 된다. 바깥 쪽에는 외부의 세계, 곧 현실이 있

15)Laverne Anderson, 「그리스도인의 바른이해」 (서울:나침판사, 1991), PP.39-41

는 반면에 안쪽에는 인간심리의 핵심인 내적인 자아가 있다. 어린 아이는 내부 핵심에서 출발하여 점차로 자아의 층들을 형성하며 마침내 “에고층”을 이루게 된다. 이 과정은 갓난아기가 나이를 한 살씩 더해 가면서 각기 3세에서 5세 사이에 형성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간의 특성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극단적 모형이 있는데, 신체와 영혼은 동일한 기초적인 실체라는 추측에 근거한 이론들로서 Absolute Materialism 에서는 기초적 실체가 물질이고 영은 물질의 산물이라고 한다. 또한 Absolute Idealism 는 기초적 실체가 영이고 물질은 영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¹⁶⁾

두번째는, 단편적이고 분석적인 모형이 있다. 이 사상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철학속에서 시작되고 발전되었다. 특징으로는 인간의 이성이 다른 피조물들과 인간을 구분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이렇게 이성을 중시한 결과 인간을 이중적인 존재로 보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사람은 보이는 것(신체)과 보이지 않는 것(영/혼)으로 구분된다는 이중적 인간 구조 모형을 만들어냈다. 고전적인 종교적 구분은 사람을 몸속에 혼이 사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혼이 몸을 마치 이사 다니는 사람처럼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사상의 기초는 헬라에서 기원하여 스토아 철학에서 집대성되었고 그리하여 기독교의 일부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 사상은 서로의 관계성이나 주위의 환경과의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논리적으로 사람의 구조적 성질을 점차 세분화하여 결국은 한 개인을 전혀 이질적인 것들이 피부 밑에 모여 있는 존재라는 모형으로 전락시켰다. 따라서 이런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은 서양인의 사고방식의 기초가 되었고 오늘의 서양의학을 태동시켰다고 볼 수 있다.

세번째는, 복합적 통일체로서 분류하는 유형이다. 사람은 복합적 통일체로서 신체와 영혼을 구분할 수 없는 전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견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은 사람이 육체와 영혼의 통합체라고 생각하나 그렇다고

16) 루이스 벨콕, 「조직신학」 제3권 인간론, 고 영민 역(서울:기독교문사, 1978), P.38.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어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살전 5:13절의 영, 혼, 육의 세 구분을 암시하는 구절은 사람을 정신 분석적으로 세 구분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전 삶이 축복 받기를 원함이라고 설명한다. 성경은 사람의 통일적 성질을 강조하고있으며 각 사람은 육체적이며 동시에 영적인 것으로서 이 모든 것이 우리 몸에서 하나의 통일체로서 작용한다고 말한다. 육체, 영, 몸, 혼 등으로 용어들이 표현된 것은 마치 사람을 2분 혹은 3분으로 구분하는 것같이 보이나 실제로는 각 용어들은 그들 특수한 관점에서 전인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의견은 전인이 “육”, “영”, “몸”, 혹은 “혼”으로 묘사될 수 있으며 각 용어들이 사람을 분석적으로 생각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는 하고 그 존재의 어떤 면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절대로 2분설이나 3분설이 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17)

또 다른 이론은 신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구분되며 둘 다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선하되 신성한 것은 아니라는 경우가 있다.(이분설) 신체적 유기체를 소유하며 거기에다가 활기를 불어넣을 수도 있는 하나의 개체적 의식적인 생명으로 보여지고 있는 인간의 비물질적인 부분을 $\psi \nu \chi \eta$ (혼)이라 부른다. 그런가하면 하나님의 영향력과 내주 하심을 자각할 수 있는 이성적 도덕적 행위자로 보여지고 있는 인간의 비물질적인 부분을 $\pi \nu \epsilon \upsilon \mu \alpha$ (영)라 부른다. 그런즉 $\pi \nu \epsilon \upsilon \mu \alpha$ 는 하나님을 지향하며 $\pi \nu \epsilon \upsilon \mu \alpha \quad \acute{\alpha} \gamma \iota \omicron \nu$ (성령)을 받으며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간의 성질인가 하면 $\psi \nu \chi \eta$ 는 땅을 지향하며 감각적 세계에 접촉하는 인간의 성질이다. 인간의 비물질적 부분이 비록 능력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으나 결국 본질상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18) 또 다른 이론으로는 신체적인 것과 혼과 영으로 구분된다는 경우이다.(삼분설) 바로 인간은 몸과 혼과 영의 명백히 구별되는 세 요소로 구성되는데, 몸은 우리 구조의 물질적 부분이며, 혼은 동물적 생활의 원리이며, 영은 우리의 이성적 생활의 원리라는 이론이다.19) 따라서 논고자는 전인의 치유에 입각하여 인간이란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여

17) 박행렬 편저, 「전인치유사역」(서울:나임출판사 1993), P.18-19.

18) 헨리 디이슨, 「조직신학 강론」 권 혁봉 역(서울:생명의 말씀사, 1975), P.357.

19) Ibid., P.359.

러개로 나뉘어진 부분의 집합체로 분리하여 나눌 수 없는 통합체로서 삼위일체적(Triune)존재라는 것이다. 그것들은 서로 연관이 되고 서로 의존적이다. 그래서 한 부분에 미치는 영향- 영의 상태가 마음이나 몸에, 마음의 상태가 몸이나 영에, 육의 상태가 마음이나 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C, 전인으로서의 인간

분명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인간의 어느 정도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를 것이냐? 무엇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것이냐?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두고 철학적 접근 혹은 유물론적 접근 방법이 있어왔고 기독교에서도 이분설에 기초한 인간이해가 있어왔다.

잘못된 인간 이해를 벗어나 성경에서 말하는 전인의 인간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기독교 인간관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우리가 인간을 단일체 즉 전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종종 별개의, 때로는 분리할 수 있는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로부터 그 부분들이 추출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왔다.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 인간은 “몸”과 “혼” 혹은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세속의 학자들이나 기독교 신학자들 모두가 점점 더 인간에 대한 이런 식의 이해는 잘못된 것이며 인간은 단일체로 보아야 한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다. 우리의 관심은 기독교 인간관이기에 이것이 정말로 그런 것인가를 보기 위해 인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새로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과학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성경은 정확한 과학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혼, 영 그리고 마음과 같은 용어를 다소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몸의 지체들이 다른 지체들로부터 기존적으로 다르다거나 다른 지체들과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비추어서 전인의 다양한 국면들에 의미를 부여하며 그것들을 강조하는 관점으로부터 이해되기 때문이다.²⁰⁾

1, 구약의 인간에 대한 표현

다양한 인간의 국면들을 따라 사용되는 용어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대부분의 경우 “혼”이라 번역되는 히브리어의 **נפש**를 살펴보면 B.D.B 히브리어 사전은 이 단어를 열 가지의 의미를 말한다. “인간의 내적 존재”, “살아 있는 존재”, “인간 그 자체”, “육망의 자리”, “감정의 좌소” 때때로 **נפח**란 형용사와 붙어서 죽은자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נפח**라는 단어 없이도 이 단어는 죽은 자를 가리킨다.

따라서 **נפש**는 전인을 나타낸다. “**נפש**는 한 인간의 전체 본성 즉 인간이 무엇을 소유하였는지에 대한 지시용어가 아니라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시용어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한 최상의 번역은 “인격”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히브리어 단어는 일반적으로 “영”으로 번역되는 **רוח**이다. 이 단어의 의미는 “움직이는 공기, 숨, 호흡”이다. 종종 바람으로도 번역된다. B.D.B. 히브리어사전은 다음과 같은 9가지 의미를 나열한다. “영”, “생기”, “기질”, “인간과 짐승의 몸에 거하는 살아 있으며 숨쉬는 존재의 영”, “감정의 자리”, “정신상의 행위의 기관”, “의지의 기관” 그러므로 **רוח**는 의미에서 **נפש**와 중첩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비추어 인간에 대한 언급이 있게 될 때는 **רוח**란 용어가 사용된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다른 사람 혹은 인간의 보통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과 연관되어 정신상의 용어가 필요한 경우에 인간에 대한 언급이 있게 될 때는 **נפש**가 가능성이 높다. 이 두 경우 모두에 전인이

20) 안토나 A. 후크마 「개혁주의 인간론」 류호준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338.

포함된다. 그러기에 **למטה**를 인간의 분리될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어떤 한 관점으로 관점으로부터 보여지는 전인으로서 생각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보통 “마음”이라 번역되는 히브리어 **לב**와 **לבו**를 살펴본다.

B.D.B 히브리어사전은 두 단어에 대한 의미를 나열하고 있다. “속사람 혼 내적 혼”, “정신”, “의지의 결정”, “양심”, “도덕성”, “인간 자신”, “욕망의 자리”, “감정의 자리”, “용기의 자리” **לב**와 **לבו**는 보통 전인을 나타내며 현저한 종교적 중요성을 갖는다.

구약에서 믿음이란 단어는 생각, 느낌, 의지의 자리를 나타내는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죄의 자리(창6:5, 시95:8), 영적 갱신의 자리(신30:6, 시51:10, 렘31:33, 겔36:26) 그리고 믿음의 자리이기도 하다(시28:7; 112:7, 잠3:5).

구약용어 이외의 경우에는 마음이란 단어는 그 존재의 심층에 있는 인간과 그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인간을 상징한다. 화란 철학자 도이벨트는 성경에 있어서의 마음을 “인간 전존재의 종교적 뿌리”라고 말했다. 그가 발전시킨 철학에 따르면 마음은 인간의 모든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활동의 중심부요 원천이다.

앤더슨은 마음을 “주체적 자아의 중심부”라고 불렀으며 그에게 있어서 마음은 “참된 질서 가운데 놓여진 육체와 영혼의 단일체인 인간이다.”²¹⁾

마지막으로 보통 “육체”라고 번역되는 **גוף**란 단어를 살펴보기로 한다.

B.D.B.히브리어사전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제시한다. “육체”, “혈연과 혈족”, “하나님 맞은편에 있는 깨어지기 쉽고 죄를 범케되어 있는 인간”, “인류” 이다.

גוף가 인간의 외적 측면으로 그리고 **נפש**가 인간의 내적 측면으로 구별되고 이해될 때라도, 이 단어들은 플라톤적 의미의 영혼과 육체의 이분론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종종 **גוף**란 단어는 연약한 인간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

때때로 **גוף**는 단순히 육체적 측면이 아니라 인성 전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21) Ibid., P.351.

그러나 사람의 모든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의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 **שׁוֹרֵף**와 함께 쓰이기도 한다. 후크마는 배쓰의 말을 인용하여 “몸과 영혼이 거의 혼용되고 있는데 영혼은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몸은 유형적인 가시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진다. 몸과 영혼의 이러한 단일성이 몇몇 저술가들로 하여금 구약은 육체적인 몸을 하나의 분별있는 실체로 보는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구약은 몸과 영혼을 하나의 단일체를 구성키 위한 시도에 있어서 서로에게 스며드는 동등자로 본다. 그러기에 종종 **רֶשֶׁת**는 구약에서 비록 강조점이 외형적 측면에 있긴 하지만 전인을 나타내기 위해 쓰여진다. 그러므로 구약의 사상 세계는 인간이 두 개 별개의 본체로 만들어진 것으로 묘사하는 어느 형태의 이분론을 철저히 배격한다. 4개의 용어들은 단순히 인격체의 단일성의 상이한 측면들을 보여줄 뿐이라는 사실에 최종적 강조점이 있다.

2, 신약의 인간에 대한 표현

먼저 **שׁוֹרֵף**에 해당하는 희랍어 $\psi \upsilon \chi \eta$ 의 뜻을 살펴보면 대부분 “혼”이라 번역한다. 안트 킹그리히의 신약 그리스어 사전은 이 단어에 대해 많은 의미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생명의 원리”, “땅의 삶 그 자체”, “인간의 내적 생명의 좌소”, “땅의 것들을 초월하는 삶의 자리와 중심”, “생명을 소유하는 것으로 즉 생명을 가진 피조물”이라는 뜻이 있다. $\psi \upsilon \chi \eta$ 는 종종 복음서에서 한 인간 전체를 나타내기 위해 또는 순전한 육체적 삶과 구별되는 참된 삶을 묘사하기 위해 죽음을 초월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존재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바울은 자연적 삶과 참된 삶을 가리킬 때 즉 인성을 나타내고자 할 때 $\psi \upsilon \chi \eta$ 를 사용하고 있다. 요한계시록에서 죽음 뒤의 삶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שׁוֹרֵף**와 동일하게 $\psi \upsilon \chi \eta$ 도 종종 전인을 상징한다.

다음으로 $\pi\eta$ 에 해당하는 희랍어 $\pi\nu\varepsilon\nu\mu\alpha$ 의 뜻을 찾아보면 인간을 가리킬 때 거의 대부분 “영”이라고 번역한다. 안트 킹그리히 신약 그리스어 사전은 이 단어의 의미를 “사람의 인성으로서의 영”, “한 인간의 자아”, “정신의 성향이나 상태”라는 뜻이 있다.²²⁾

바울이 인간의 육체적 기능에 대하여 $\pi\nu\varepsilon\nu\mu\alpha$ 를 사용하며 $\pi\nu\varepsilon\nu\mu\alpha$ 는 종종 $\psi\upsilon\chi\eta$ 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 단어는 전체로서의 인간을 나타냄으로 육체적인 본성보다는 심적 본성에 더 많은 강조점이 주어질 수 있겠다.

바울은 종말론을 논하면서 래드는 우리에게 바울의 사고에 있어서 인간은 영광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영으로 중생을 경험한다고 말하고 있다. 바울은 때때로 $\pi\nu\varepsilon\nu\mu\alpha$ 와 인간은 외적 측면에 반하는 내적 차원으로서의 몸을 대조시키고 있다.

$\pi\nu\varepsilon\nu\mu\alpha$ 가 인간의 자기인식 혹은 자아인식을 기술하기도 한다. 스테세이는 바울이 $\pi\nu\varepsilon\nu\mu\alpha$ 를 오직 중생한 사람만이 갖고 있는 그 무엇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모든 사람이 날 때로부터 $\pi\nu\varepsilon\nu\mu\alpha$ 를 갖게 되나 기독교인의 $\pi\nu\varepsilon\nu\mu\alpha$ 는 하나님의 영광의 교제를 통해, 새로운 특성과 새로운 품위를 띠게 된다”고 주장한다.²³⁾ 또 $\pi\nu\varepsilon\nu\mu\alpha$ 가 죽음 이후의 생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히브리서 12:23을 죽은 성도들을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스테반은 그들이 운명할 때, 그들의 영을 성부 하나님 혹은 성자 하나님께 의탁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확신컨대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벧전 3:19). 그러므로 $\pi\nu\varepsilon\nu\mu\alpha$ 는 거의 $\psi\upsilon\chi\eta$ 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신약에서는 종종 이 두 단어는 혼용되고 있다. “영은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되나 혼은 결코 그렇게 사용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psi\upsilon\chi\eta$ 가 인간편에서 사람을 나타내는 반면에 $\pi\nu\varepsilon\nu\mu\alpha$ 는 하나님편의

22) William F. Arndt and F. Wilbur Gingrich, 「A Greek - English Lexicon of the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57).

23) Ladd, 「신약 신학」, PP. 461-463.

측면에서 사람을 나타내 준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²⁴⁾

이러한 뜻이 대체로 맞지만 $\psi \upsilon \chi \eta$ 는 때때로 주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으로 기술되기도 하며(눅1:46) 야고보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긴 말씀에 관해 말하고 있다. 또한 분명히 $\pi \nu \epsilon \upsilon \mu \alpha$ 가 전인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지기도 한다. $\psi \upsilon \chi \eta$ 처럼 $\pi \nu \epsilon \upsilon \mu \alpha$ 도 전체성에 비추어 인간의 한 측면을 기술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kappa \lambda$ 와 $\kappa \kappa \lambda$ 에 해당하는 희랍어 $\chi \alpha \rho \delta \iota \alpha$ 의 뜻을 살펴보면 보통 “마음”이라고 번역된다.

안트 킹그리히 그릭어 사전은 이 단어의 뜻을 “육체적, 영적, 정신적 생명의 자리”라는 의미를 제시한다. 또한 인간이 지, 정, 의를 포함하는 인간의 모든 내적 삶의 중심과 원천으로 기술되고 있다. 또한 마음은 성령의 내주하시는 장소라고 표현되고 있다. 마음은 인간의 모든 내적 존재, 즉 인간의 심층부를 의미하며 자아 즉 인성을 상징한다. $\chi \alpha \rho \delta \iota \alpha$ 는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인간 속의 최고의 중심으로서 그 안에 종교적 삶이 뿌리를 박고 있으며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결정짓는다.³⁵⁾ 살후 3:5과 벰전 1:22에서는 사랑을 마음과의 관계를 말한다.

롬6:17과 골로새서 3:22에서 보면 순종은 마음에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마 11:29에서는 용서가 마음과 연관되어 있다. 마5:8과 야고보서 4:8에서 마음이 순결의 자리로 묘사되고 있다. 골3:16에서 감사가 마음에 관계되며 빌 4:7에서는 평강이 마음을 지킨다고 기록하고 있다.

칼바르트 지서 「교의학」에서 ‘영혼과 육체로서의 인간’을 다루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성경 본문들에 충실한다면 마음에 대해서, 그것은 인간 자체의 모든 것이요, 그러기에 그의 활동의 소재지일 뿐만 아니라 활동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마음은 인간의 단지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인간의 실존 그 자체이며 영과 육의 전체적 실체인 것이다.

다시 한번 인간의 전인성에 대한 성경적 중요성을 발견케 되는 것이며, $\chi \alpha \rho \delta \iota \alpha$ 는 인간의 內的 本質에 있어서의 全人을 상징한다. 마음에서 믿음의

24) Ibid, P.459.

태도이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 태도가 결정되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서 비록 구약에서는 몸을 나타내기 위해서 $\sigma\alpha\rho\xi$ 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신약에는 몸을 나타내는 두 단어 $\sigma\alpha\rho\xi$ 와 $\sigma\omega\mu\alpha$ 를 안트 킹그리히의 그리스어신약 사전은 보통 육신이라고 번역되는 $\sigma\alpha\rho\xi$ 에 대해서 “몸”, “인간”, “인간 본성”, “육체적 한계”, “삶의 외적 측면”, “죄의 의지적 도구”라고 제시한다.

그런데 신약에 있어서 $\sigma\alpha\rho\xi$ 는 두 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바로 인간 존재의 외적이고 육체적인 측면인 전체로서의 인간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타락한 인간 속에 있는 성향으로서의 육신에 대해 사용한다.

바울 서신에 주로 나타나는 두 번째 의미에 있어서 $\sigma\alpha\rho\xi$ 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육신의 죄”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의미를 제한해서는 안된다.

반대로 $\sigma\alpha\rho\xi$ 가 전인에 의해서 범해지는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겠다. 갈 5:19-21에 나타나는 “육체의 일”에 있어서, 열 다섯 개중에서 다섯 개만이 육체의 죄이며, 나머지는 “영의 죄”라 일컫는 죄들이다. 즉 증오, 분쟁, 시기, 분냄 ... 심지어 $\sigma\alpha\rho\xi$ 란 단어가 두 번째 의미에서 사용될 때라도 그것은 전인에 관계된 것이요, 단순히 사람의 한 부분에만 관한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몸”이라 번역되는 $\sigma\omega\mu\alpha$ 의 뜻을 살펴보면 안트 킹그리히의 그리스어 신약사전에는 “살아있는 몸”, “부활체”, “기독교 공동체 혹은 교회”라는 의미를 말한다.

임상목회 교육학에 있어 성경이 말하는 다양한 인간의 표현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인간은 단일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바로 육체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을 갖고 있으나 우리는 이 둘을 분리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인간은 육체를 갖는 영혼 혹은 영혼을 갖는 육체로 이해되어야 하겠다. 인간은 상이한 “부분들의 복합체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전체성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통일된 신, 구약의 가르침이다. 인간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으나, 동시에 하나의 인격체이다.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반면에 그의 몸의 일부인 두뇌를 갖고 있으며 이 마음이 없이는 인간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무언가 잘 되어갈 때, 인간은 때때로 수술이 필요하기도하며 또 어떤 때는 상담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인간은 이 두 측면으로부터 고찰될 수 있는 하나의 총체적 인성이다.

V. 전인 치유 사역으로서 임상목회 교육학

A. 건강, 질병의 개념

1. 건강의 개념

WHO에서는 25년 전만해도 건강을 세 분야에서 관찰하였다. 그 결과 신체적(Physical), 정신적(Mental), 사회적(Social)으로 쾌적한 상태를 건강이라고 정의하였다. 그 후 1982년 인도의 뉴우델리에서 열린 세계 기독교의사회(World Christian Medical Society)에서는 영적(Spiritual)분야를 추가하여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영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상인 상태이다”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더 나아가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며 불구가 아닌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부언하였다.²⁵⁾ 그러므로 영, 혼, 육의 삶이 순조로이 진행되어 나가는 삶을 뜻하여, 개인의 활력이 배양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은 인간의 전인적 구성요소들, 사람들과 자연환경, 사회, 경제, 정치적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질서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 평안과 화해를 이룬 상태를 말한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넘치는 총체적인 건강(Holistic Health)인 것이다. 즉 건강은 인간의 한 영역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인성(Wholeness)을 다루는 것이다.²⁶⁾

인간의 전인성은 전인(全人)과 관련되어, 손상 없는 건강한 상태로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각각 건강하고, 그들 서로의 관계가 튼튼하게 결속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 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강하다는 것은 인격체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통합되는 것이며 인간이 여러 관계 안에, 그리고 사회 환경속에 융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한 사람은 육체와 정신, 영혼이 조화를 이루어 가

25) 권양순,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전인 치유의 효과적 방법 연구」, (석사학위 논문,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원, 1986), P.22.

26) Paul Tournier, 「인간치유의 심리학」, 황찬규 역, P.233

는 사람이며,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이루는 사람이다. 신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는 저항력과 파괴력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상태를 말한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는 다만 정신병에 걸리지 않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이루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능력을 가진 상태를 말한다. 즉 정신 건강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 속에서 독자적이면서 능률적이고, 현실적이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적응능력과 상호간의 관계를 뜻한다.²⁷⁾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함을 받아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악령과 대결하여도 승리하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지(知), 정(情), 의(意)의 천부적 인격이 신체, 정신, 영혼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혼연일체가 된 총체적 인간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자기 주위를 이룰 수 있는 상태를 건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사람이란 육체적 측면에서는 신체의 모든 기관이 완전하게 기능하여 다른 기관과도 조화를 이룬 상태를 말하고, 정신적 측면에서의 건강은 평온의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는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늘 평정을 유지하는 상태로서 대체로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 현실적인 판단을 하며 자신의 장점과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타인에게 성실한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신을 돌볼 수 있고 성격의 부조화를 이루지 않고도 스트레스와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다.²⁸⁾ 결국 건강이란 인간전체를 다루는 것으로서 건강한 사람은 온전하게 조화를 이루어 인간의 타락이전 상태,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로 회복되어 가는 사람인 것이다.

2, 질병의 개념

Dorland의 의학사전에 의하면 질병이란 일반적으로 건강상태로부터의 이탈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특수한 증후, 증상을 수반하는 비정상적인 생의 과정이라고 정의한다.²⁹⁾ 앵겔은 질병은 유기체의 전체 혹은 일부에 생기는 성

27) 박종철, 「기독교와 정신 건강」, 그리스도와 의료 (1978. 11), P.9.

28) 이광자, 「정신건강 간호학」, (서울: 신광출판사, 1987), P.2 .

29) 박형렬, 「전인치유 사역의 현장과 실제」 (서울: 목회와 신학 1983), P.90.

장발달 기능 혹은 적응의 실패나 장애이며, 질병은 독립된 별개로 보지 않고 사람과 그 인격 및 환경과 연결된 것으로 생각하였다.³⁰⁾ 질병의 어원을 살펴 보면 'Disease'는 dis(아니다)와 ease(평안)의 합성어로 '평안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dis의 어원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의미의 disobey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Obey) 건강하고, 불순종하면(Disobey) 평안하지 않은 상태, 즉 질병에 걸리게 된다. 그러기에 질병은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과 자연과의 균형과 조화가 깨져 온전하거나 원활하지 못한 상태이다. 조직체의 규칙적인 반응에 의해 연합된 사물들의 집합 안에서 어떤 것이 고장난 상태 또는 조직체의 '부적응' 및 '부조화'상태가 질병이다.

결국 질병이란 하나님의 법을 어겨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난 전인적인 인간과 그를 둘러싼 모든 관계의 단절이다. 그 결과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이웃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자연 환경과의 부조화로 온전하지 못한, 그래서 구속적 치유와 성장을 기다리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어떤 형태든지 마음과 영혼에 평안함이 없거나 행복하지 못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는 것은 질병의 상태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질병과 죄와 죽음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³¹⁾ 질병의 정의를 영역별로는 (ㄱ)육체적 질병은 저항력과 파괴력의 균형이 깨진 부조화의 상태로 세균이 침투하거나 사고에 의해 진행된다. (ㄴ)정신적 질병은 정신적 온전함과 평온이 깨진 상태로 불안, 근심, 공포, 초조, 시기, 질투, 보복심, 이기심, 억압감, 절망 등에 휘말려 감정조절 기능과 표현이 힘들고 우울감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힌 상태를 말한다. (ㄷ)영적 질병은 하나님의 법과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악한 사탄의 지배를 받아 인간의 정욕과 명예와 욕망을 따라 사는 상태를 말한다. (ㄹ)전환경적 질병은 자신과는 물론 대인관계 그리고 대자연의 주변환경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무질서와 불신, 불의, 불만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다. 오늘날 많이 나타나는 정신과 신체적 질병을 '심신증'이라고 하는데, 정신적 충격과 병리 상태가 신

30) 한명옥, 「건강과 치유의 기독교적 이해」(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1988), P.18.

31) 성서백과편찬위원회, 「성서대백과사전 IV」, (서울:성서교재간행사, 1982), P.884.

체에 영향을 주고 신체적 질병이 정신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병이다. 또한 영적-정신적 질병과 영적, 정신적, 신체적 질병이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질병상태도 있다.

B. 성경에 근거한 전인치유

성경에서 예수님의 치유는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사회적으로 모든 차원에서 다루어진다. 무질서하고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소외되고 타락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부터 정상적인 상태로의 회복하는 과정이다. 육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이요, 창조 당시의 사회적 질서와 규율에서의 회복이다.

治癒는 개인의 육체적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치유라고 하는 병사는 앵글로색슨어의 형용사 Hal에서 파생한 것이다. 그것은 전투병이 ‘온전하게’(Whole), 혹은 ‘건전한’이라는 의미로 신체에 적용하게 되었다. 이처럼 Healing이라는 말은 신체의 건전함을 회복시켜준다는 뜻이었으나 현대에 와서 그 용법이 확대되어 결국 건강이라는 말로 정의되었고, 모든 기관이 순탄하고 조용하게 제 기능을 수행하는 동안에 갖는 신체적 양호상태에 대한 일반적인 느낌으로 해석하고 있다.³²⁾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인 Paul Tournier는 말하길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이다. 인간은 단순한 육체적, 정신적 유기체가 아니다. 인간은 영적인 차원을 가진 존재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³³⁾ 따라서 전인(全人)이라는 개념은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차원이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상호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32) 이명수, 「치유선교론」 박행렬 편저 (서울 : 나임출판사, 1993), P.18.

33) 김기복, 「임상목회교육」, (서울: 전망사, 1993), P.89.

1, 구약에서의 어원

구약 성서에서 명사로 치유라는 의미의 단어는 두 가지로 קָרַח 와 רָפָא 이다. קָרַח 는 예레미아 8:22;30:17;33:6절에 사용되고 있다.³⁴⁾ 이 단어의 뜻은 ‘건강을 회복하다’는 의미로서 치료, 고침, 회복, 원상 복구, 완쾌, 간척, 관리 회복, 승소, 병이 차차 나아감의 뜻이 있고, 문자 적으로나 상징적인 의미로는 ‘온전함’의 뜻이 있다.³⁵⁾

רָפָא 는 예레미아 14:19, 역대하 21:18절에 ‘치료, 고침’으로 사용되며 원시 회복의 뜻이 있다.³⁶⁾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치료(법)’, 즉 문자 적으로 ‘약’, 혹은 (추상명사) ‘치료’, 상징적으로 ‘구출, 평온, 치유, 완쾌, 치료, 구제법, 교정법, 건강, 건전, 건강상태, 위생, 평정, 부드러움, 온화함, 냉정, 침착’등의 의미가 있다.³⁷⁾

동사로 치유하는 단어의 뜻은 רָפַח , רָפָא 그리고 רָפַח 가 사용되고 있다.

רָפַח 은 ‘회복케 하다’로 이사야 38:16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 단어의 본래의 의미는 ‘견고하게 묶다’, 함축적인 의미는 ‘뚝뚝하게 되다’, 또 상징적인 의미로 ‘꿈꾸다, 꿈에 생각하다, 몽상하다, 강하게 되다’라는 의미가 있다. 때에 따라서 ‘강하게 만들다, 힘세게 하다, 치료하다’는 뜻으로 사용된다.³⁸⁾ רָפַח 는 이사야 58:8절에 ‘치료하다’로 사용되며 상징적인 의미로는 ‘씩이 트다, 산출하다, 솟아나다, 자식이 생기다’ 등이다.³⁹⁾ רָפָא 로 쓰인 단어는 치유의 의미를 내포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의 역사 하심으로 정상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 용어는 인간의 질병 외에도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나쁜 물을 의미하거나(왕2:22) 바닷물이 소성되고(겔47:8), 토기장이의 깨진 그릇이 회복되고(렘19:11), 국가적인 회복(호6:1; 렘51:7-8), 등에 쓰여졌다.

34) 이성호, 「성구대사전」(서울 : 혜문사), P.1401.

35) 조두만, 「히브리어, 희랍어 원어대사전」(서울: 성지사, 1987), P.34.

36) 이성호, OP. cit., P. 1401.

37) 조두만, OP. cit., P. 203.

38) Ibid., P. 107.

39) Ibid., P. 281.

2, 신약에서의 어원

신약성서에 나타난 치유에 대한 단어들을 살펴보면 동사형으로 된 네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병 고침이나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에 특수한 그리스도교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⁴⁰⁾ *ιάομαι*: 치료하다, 병을 고치다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희랍어 용법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의학적인 용어만 사용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언어에서 사용한 단어처럼, 그 단어는 도덕적인 상처나 질병의 치료에까지 그 용법이 확장될 수 있었다. 실제로 희랍어만을 생각할 경우에는 이 단어는 이교적인 용법에서 특수하게 죄를 의미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죄 그 자체는 질병으로 알려진 또 하나의 분리된 별개의 것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질병으로 파악된다. *θηραπειω*: Therapy어원이 되는 이 단어는 '의료적 처치'나 '치유'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흔한 단어이다. 원래의 의미는 신들을 섬기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돌봄이나 섬김을 제공하는 것이다. 차용에 의해서 이 단어는 '치료하다', '회복시키다', 또는 '병을 고친다'를 의미하게 되었다. *ὑγιαίνω*: 좋은 건강상태에 있기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건강의 여신 '히게이아'의 이름에서 기원하였으며, 영어 단어 Hygiene는 이 단어에서 유래하였다. 이 단어는 몸이나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일들의 건강한 또는 건전한 상태를 언급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그리고 희랍의 의료 용어에서 기본적인 단어로 쓰인다. *σωζω*: 보존하다, 상하지 않게 지키다, 구제하다,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다를 의미하는 이 단어는 고전 희랍어에서 의료적인 의미를 비롯하여 다양한 의미들로 사용된다. 이 단어는 치료의 의미를 한 사람을 질병이나 죽음으로부터 구원한다는 의미로 전달해 주었다. 희랍의 개념 가운데서는 몸을 구원하는 것이 중도에 전존재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단어는 의미상으로 완전한 구원의 개념과 연결된다. 이 단어로부터 신학적인 용어인 구원론(Soteriology)이라는 말이 유래한다. 복합어인 *διασώζω*('통하여'와 '보존하다'

40) M.T. 켈시, 「치유와 기독교」 배상길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PP. 121-122.

를 결합시킨)는 위험을 뚫고 안전하게 가져오다 또는 위험을 헤치고 보존하다를 의미하며, 그 의미나 용법에 있어서 유사하다. 이러한 단어들은 복음서들과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예수와 후대의 다른 사람들의 사역에서 치료가 발생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사용된다.⁴¹⁾ 구원받아 완전하게 된 경우를 의미할 때는 σωζειν을 사용하였다. 독일어의 Heil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건강과 치유의 뜻을 내포하며 신약성경에서 50회 정도 사용되었다.⁴²⁾ 치유의 가장 핵심은 영적 치유이다. 인간이 타락의 결과로 죄가 질병을 가져 왔다. 따라서 죄는 인간 본질의 모든 면에 영향을 주며, 그 결과 부도덕의 진행조차 죄라는 것을 명확히 가르쳐준다. 인간은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될 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어 마음에 강한 힘이 생기게 되면서 치유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롬6:3-11 ; 갈2:20) 진정한 치유란 몸, 정신, 영혼의 합일로 이루어지고 치유와 구원은 연합된 상태이며, 단지 질병 회복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 이후의 지속적인 삶으로 연관시켜 신앙의 헌신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회복된 건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이므로 본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든 면에 균형 잡힌 조화된 삶의 자세로의 확립이다.

D, 예수와 Logotherapy

1, 예수의 치료법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실 때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치유하셨는가 ?
어떤 사람들을 치유하셨으며 어떤 방법으로 치유하셨고 왜 그러한 치유를 하셨는가 ?

예수님은 인간을 단순한 존재로 보지 않았다⁴³⁾ 첫째로 예수님은 인간을 피조

41) M.T 켈시, OP. cit., PP. 6-7.

42) 박행렬 편저, 「전인치유사역」 (서울 : 나임출판사, 1993), P.19.

43) 이기춘, “기독교의 치유와 영성”, 「기독교 사상」 1988년 4월호., P.99.

물 중 가장 귀한 존재로 보았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켜 본래 창조되었을 때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하려했다.(롬8:29) 지음을 받았을 때 지녔던 하나님의 형상의 타락은 총체적인 것이었다. 육체의 질병, 정서적 불안, 정신적 제한성, 영적 이기주의, 사회적인 혼란과 폭력, 종교적인 우상숭배, 자연의 파괴 등 총체적으로 인간의 삶은 타락하고 파괴되고 단편화되었다.

우리 인간은 총체적인 삶의 전인성을 원한다. 다시말하면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이나 차원이 불완전하거나 거기에 결함이 생기면 우리 삶의 다른 모든 부분들과 차원들에 동시에 영향을 주어 삶의 완전성은 무너지고 만다. 이러한 측면의 인간으로서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의 인간이해 대 전제이다.

히브리인으로서 예수님은 인간의 피조성에 대해 전적으로 알고 계셨다. 따라서 예수님의 관점은 인간이 피조물이나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가장 소중한 피조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간을 가장 귀한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사회적 편견을 버리고 사마리아여인을 찾아갈 수 있었다.(요4:5-42) 둘째로 예수님은 인간을 '전인'으로 보았다.⁴⁴⁾ 육체와 영혼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격체로서의 인간으로 이해하셨던 것이다. 예수님은 치유 사역에서도 육체에 국한시키거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치유하셨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마가복음 1:40-44 문둥병자의 문제는 총체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살펴보면 (ㄱ)육체적인 결함: 문둥병은 날마다 죽는 병인데 단번에 죽어버리는 병이 아니라 날마다 신체의 한 부분씩 죽어 가는 모습을 보아야 하는 병이고,

(ㄴ)정신적인 결함: 날마다 죽어가는 시체를 보는 문둥병자의 마음은 절망, 분노, 수치, 죄책, 원망, 불안, 공포 등등의 정신적, 정서적 충격의 요인이다.

(ㄷ)사회적인 문제: 다름 이들과 교제가 금지되고, 생이별을 해야하고, 격리 수용되어야 하고, 일체의 주권이 박탈된다.

44) 존 터너, 「치유하는 교회」 김선도역 (서울: 도서출판사 광림, 1984), P. 27.

(ㄹ)영적인 단절: 이 병에 걸린 환자는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자로 인식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인생이다. 문둥병자는 문둥병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삶이 총체적으로 파괴되었다. 따라서 그를 치유코자 한다면 총체적인 전인회복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4가지로 예수의 치유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a,민망히 여기서 - 상처받은 감정의 치유

민망히 여기신다는 뜻은 '함께 느낀다' 또는 '아픔을 함께 한다'는 뜻으로서 예수께서 문둥병자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뜻은 그 문둥병자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온갖 정서들과 문둥병에 걸린 후에 받은 마음의 상처들을 함께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거은 바로 '공감한다' 또는 '감정이입한다'는 말로 사용한다. 'Empathy'는 희랍어에서 온 것으로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을 가진 전치사 'em' 과 깊은 감정, 또는 밑바닥에 있는 감정이란 뜻을 가진 'Pathia'가 합성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따라서 공감이란 말은 'Empathy' 즉 상대방의 깊은 감정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며, 바로 예수께서 문둥병자의 문둥병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그에게 가득한 상처받은 마음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치유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상담은 내담자의 부정적 감정들과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는 것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b,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 감정과 관계의 치유

신체의 접촉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특히 고침 받기를 원하면서도 저주받아 걸린 부정한 신체를 갖고 있는 문둥병자에게 신체적인 접촉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① 이 접촉은 문둥병자에게 사랑의 접촉점이 형성되는 것으로서, 내담자의 더러운 몸, 부정한 몸에 예수께서 손을 대심으로 예수께서 자기의 손이 부정하게 되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둥병자의 몸에 거룩한 예수의 손을 느끼면서 뜨거운 감격과 사랑을 내담자는 경험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둥병자 속에 굳어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과 상처받은 마음을 녹이는 힘이 있다.② 이 접촉에는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서, 문둥병자는 자기 몸에 있는 부정한 문둥병 때문에 사람들과 단절되는 아픔을 경험했고, 그 문둥병이 있는 동안에는 다른 이들과 철저히 차단되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세상에 예수 한 분만은 내담자의 문둥병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만나고 손을 대는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그는 완전히 소외되었던 삶에서 다시 이웃과 연결되는 끈을 자기 몸에 있는 예수의 손에서 느끼는 것이다.45)

③ 이 접촉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있다. 이제까지 문둥병자의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요, 자기에게 불치의 병을 내려준 적대 관계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담자가 예수께 나아와 꿇어 엎드리어 자기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한 것은 문둥병자의 마음 속에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요, 자기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당시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오시면 그 문둥병을 고쳐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c, 깨끗함을 받으라 - 육체의 치유

예수께서는 관심이 문둥병자의 모든 결함들이 완전히 고침을 받고, 감격스러운 삶을 사는데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육체의 질병까지 치료하시므로 그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다.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막1:41-42) 이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능력으로 역사 한다. 예수께서는 여러 번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러므로 임상목회 상담의 교육학에서의 특수성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것이다.

예수의 말씀은 내담자에게 몇 가지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는데 이것을 살펴보면 첫째, 말씀으로 내담자를 치유하셨다. 임상목회상담은 성경말씀을 가지고

45)원효식 교수, 「임상목회 교육학 강의안」,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P. 82-84.

하는 상담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성경말씀의 바탕 위에서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상담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둘째, 예수님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문둥병을 치유했지만 동시에 문둥병자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나님은 문둥병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고치시는 하나님이요, 재앙에서 해방시키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었다.

셋째, 예수님의 말씀은 문둥병자에게 새로운 정서를 충만하게 하였다. 그 말씀으로 육체의 병이 나았을 때 내담자의 속에 있던 분노, 수치, 죄책, 절망, 원망, 한 맺힘, 불안, 공포 등의 부정적 감정은 물러가고 감격, 기쁨, 평안, 사랑 등의 감정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이러한 감정들은 인위적으로 줄 수 없고 다만 말씀으로 치유의 기적이 나타났고, 상담자인 예수와의 접촉점이 이루어졌고, 내담자에게는 새로운 긍정적인 정서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d, 제사장에게 보여라 - 사회적 회복(레14:1-32)

예수께서는 문둥병을 치유 받고 감격에 휩싸인 내담자에게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케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막1:43-44)고 말씀했다. 이 말씀가운데 임상목회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내담자의 고통에 동참하는 사랑을 가져야 하지만 동시에 내담자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 만일 제사장의 증명 없이 사람들에게 보이게 보이면 사람들은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제사장의 증명 없으므로 아직도 문둥병으로 여겨 돌로 쳐죽일 수 있게 되었다. 문둥병 환자가 그 병에서 나으면 자동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대로 정한 예물을 제사장에게 드리고 검증 받아야 한다. 내담자가 완전히 회복되어 완전한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는 감정의 상처와 관계의 회복과 영적인 구원과 육체의 질병에서만 해방되어서는 안되고 법적인 회복까지 즉 총체적으로 한 인간의 삶을 전인적으로 회복시키는 치유의 근간이 되어야 한다.⁴⁶⁾

또한 요한복음4:3-45에 근거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한다.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예수는 사람들을 돌본다. ‘시워드 힐트너’는 실천신학을 세 분야로 나누었는데, 첫째 목양의 관점(Shepherding Perspective), 전달의 관점(Communicating Perspective), 조직의 관점(Organizing Perspective)이다. 이 가운데 목양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교회가 교인들을 인도하며, 치유하며, 보호하며, 훈련시키며, 돌보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힐트너는 목양의 관점에 근거한 목회를 세 가지 분야로 설명한다. 첫째 치유교역(Healing ministry)으로 결함이 생긴 자를 원 상태로 회복시키며 그 과정에서 인격적으로 재구성하고 영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목회요, 둘째 지탱교역(Sustaining ministry)으로 이미 어떤 상실이 생겼고 그 상실을 원 상태로 회복시키기 불가능한 자들에게, 상실이 일어난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현상을 보존하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자원들을 재구성하여 새 출발 할 수 있게 돕는 목회이다. 셋째 인도교역(Guiding ministry)인데, 이것은 두 가지나 그 이상의 결심이나 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택하도록 돕는 목회이다. 넷째는 그가 억압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목양의 관점에서 배제시킨 화해교역(Reconciling ministry)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하여 죄를 용서하며 훈련시키는 화해교역은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의 관심에서 피할 수 없는 사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법의 상담에는 네 가지 목양의 관점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임상목회상담의 모델로 제시된다.

사마리아 여인은 치유와 지탱과 인도와 화해의 교역이 필요한 환자이다. 그는 치유 받아야 할 마음의 상처를 간직하고 있으며, 이미 다섯 명의 남편들과 이별하였고 여섯 번째의 남자와 살고 있으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고 있는 여자이다. 이 여인은 어떠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치유 받아야 하는가? 첫째로 이 여인이 낮 12시에 물을 길러 야곱의 우물을 찾아

46) Ibid., 84-86.

온 여인인데, 이 당시의 풍습으로는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사람들은 일손을 멈추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면서 휴식한다. 이 시간에 여인들은 조용히 집안에 있어야 하며, 길거리에 돌아 다니는 여인은 '거리의 여인'으로 취급된다. 이 여인은 이미 사람들의 조롱이나 수군거림이나 떠드는 소리에 면역이 되었고, 누가 무엇이라 해도 '버린 몸'이라고 체념 할 수 밖에 없는 인생으로 취급되었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로 결혼은 꿈과 기대와 축복을 심어 주는데, 남편과의 이별은 좌절과 실패와 상처를 안겨 준다. 따라서 이 여인은 결혼과 이별을 다섯 번 반복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좌절과 실패와 상처를 경험하였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감격적인 새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응어리진 마음의 상처를 치유 받아야 한다. 예수의 상담에서 특별한 점은 사마리아 여인이 제 1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욕구를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그것들을 초월하여 예배와 하나님과의 교제로 인도하고, 그녀에게 완전한 구원과 생명을 허락해 주고자 한다.⁴⁷⁾ 예수님께서서는 병자들을 치유해 주실 때에 항상 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도움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에게 그들 자신의 믿음을 요구하시거나 병자들의 몸에 손을 대시거나,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적인 매개물들을 사용하셨다. 예수님의 다양한 방법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예수께서는 손을 얹거나 대시거나 손으로 만지심으로 치유하셨다. 이것은 예수의 치유 방법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치유방법중 하나이다. 교회의 후기 역사에 있어서 이처럼 예수께서 손을 대신 행위는 안수로 지칭되었는데 이 치유 방법은 예수께서 나사렛에 계셨을 때 그는 사람들의 믿지 않음으로 방해받으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심으로 그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다.(막6:5)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말고의 상처를 만지심으로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다.(눅22:51) 한 문둥병자를 고쳐 주셨고(마8:1-4), 두 소경을 고쳐 고치셨으며(마9:27-31)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으며(마3:15), 18년 동안 귀신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펴지 못하는 여인을 치유케 하셨다.(눅13:11) 어떤 때는 그와 반

47) Ibid., 87-91.

대로 병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거나 옷을 만졌을 때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마5:25-34)

둘째로 말씀과 명령으로 치유하셨다. 말씀과 명령은 악령 추방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요11:43)와 열 명의 문둥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을 때 (막5:8)와 왕의 신하의 아들을 멀리서 치유해 주셨을 때(요 4:50)와 베데스다 못가에서 혈기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셨을 때(요5:8)에 있어서 처럼, 병자들을 치유해 주심에 있어서 매우 여러 번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이러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2, Logotherapy 치료법

Logotherapy의 어원을 살펴보면 logo는 $\lambda o \gamma o s$ 로서 '의미'라는 뜻을 가진 희랍어이다. 의미치료의 이론을 Viktor E. Frankl(1905)이 만들어내는데 많은 영향을 받은 실존주의 철학과 그의 강제수용소의 체험, 그리고 Freud와 Adler의 영향에 있었다. 프랭클은 그의 의미치료를 통해서 무의식 속에 쫓겨나 있는 그리하여 억압되어 있는 책임감, 양심 그리고 종교심을 풀어주려고 한다. 그리하여 인간이 다시 인간답게 되도록 도와주려 한다. 48) 인간에 대하여 존재론적인 측면에서는 신체적(Physical Somatic), 심리적(Psychological Mental), 정신적(Spiritual Noëtic) 존재로 49) 기본적인 특성면에서는 영적(정신적), 자유, 책임적 존재로, 실존철학적 측면에서는 기계적 인간, 이성적 동물, 신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프랭클은 인간을 정신(Spirituality), 자유(Freedom), 책임(Responsibility)의 세 요인으로 구분한다.

48) Viktor E. Frankl, 「무의식의 신」, P. 9.

49) Joseph B. Fabry, 「의미치료」, 고병학 역(서울: 하나의학사, 1985), P.51.

신체, 마음 그리고 심령의 존재론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통일성과 단일성은 그대로 보존된다. 이를 차원적 존재론이라고 한다.

a, 정신적 존재(영적 존재)

의미치료는 인간 본성과 또한 우주에 있어서의 우리의 위치에 관한 어떤 가정에 기반을 둔다. 기본적 가정은 인간은 육체적, 심리적 차원 이외에 특별하게 영적인 인간 차원을 소유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영적인 힘으로 우리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유지시킬 수 있는 인간 내재의 잠재력의 저장소에 우리의 주위를 돌리게 한다. 종교적인 의미를 탈피하기 위하여 프랭클은 인간의 영을 “영적(Noëtic)” 차원이라 부른다. 이 용어는 그리스어 noös(靈)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그러나 프랭클은 이 용어를 특히 인간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기 위해 사용한다. 영적(인간적인)차원은 의미에서의 의지, 목표 설정, 사상과 이상, 독창성, 상상, 믿음, 육체를 넘어선 사랑, 초자아를 넘어선 양심, 자기초월, 약속, 책임, 유머감각, 선택의 자유같은 그러한 자질을 포함한다.⁵⁰⁾ 심리치료 의사는 신체적인 면 내지 심리적인 면에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진정으로 인간전체를 다루지 못하게 된다. 참으로 인간에게 고유한 인간적인 면은 신체나 마음이 아니라 영(靈)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인간의 결단하고 책임지는 측면을 나타낸다.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것은 이 책임성 때문이다. 로고테라피의 공로는 바로 인간의 이 영적인 면에서 강조점을 둔 데 있다.

b, 자유적 존재

인간은 환경의 영향에 따라 어느 쪽으로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 있을 뿐이다. 인간은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억압당하는 그런 끔찍한 상태에서조차도 정신적 자유, 독립적인 사고 방식의 흔적을 간직 할 수 있다. 프랭클의 강제수용소의 체험에서 배고픈 것은 똑같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성자처럼 처신하는 것을 보았다. 인간은 자기 자신 속에 두 가지 가능성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중 어느 것을 실현하느냐 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죄수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자신이 스스로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가에 달려 있지, 수용소의 영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50) Ibid, PP.51-53.

이다.

프랭클은 자유를 두가지로 구분한다. ---로부터 자유(Freedom from--)는 인간이 처한 생물학적, 사회학적 환경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로 향한 자유(Freedom to--)는 무엇인가를 향하는 자유이다. 즉 인간의 자유란 책임적 존재로서의 자유, 그리고 양심적 존재로서의 자유를 의미한다.⁵¹⁾ 그러므로 항상 선택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환경을 바꿀 수는 없지만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나 태도를 선택할 자유는 가지고 있다.

c, 책임적 존재

인간은 어디까지나 책임적 존재이다. 그리하여 프랭클의 실존분석에 의하면 무의식 속에는 충동과 본능만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책임감이 감추어져 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삶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됨으로써만 삶에 대답할 수 있을 뿐이며, 삶에 책임을 짐으로써만 대답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로고테라피는 책임을 지는 데에서 존재의 참된 본질을 찾는 것이다. 책임감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로고테라피의 절대명제에 나타나있다. “인생을 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 그리고 첫 번째 인생은 지금 막 하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형편없이 행동했던 것처럼 살아라” 인간의 책임감을 자극하는 데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은 없다고 생각한다. 로고테라피는 환자로 하여금 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깨닫게 해주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그 자신이 무엇을 책임져야 하는지, 무엇에 책임이 있는지 또는 누구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선택권은 환자에게 맡겨야 한다.⁵²⁾ 이처럼 로고테라피는 인간의 책임성을 회전점으로 삼고 있으며, 안건 존재에 대한 분석으로서의 실존분석은 책임성 존재를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실존분석은 인간존재의 사명 성격 그

51) Ibid, P.189.

52) Viktor E. Frankl, 「죽음의 수용소에서」, P.136.

자체를 의미한다. 그것은 인간 존재를 가장 깊은 책임성 존재로서 체험케 한다. 53) 프랭클의 로고테라피에서는 실존분석을 통한 의료봉사를 함으로써 모든 심리치료에서 다루지 못했던 영적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 실존분석은 구체적인 개인의 분석, 즉 존재의 의미에서의 분석만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의미에서의 분석이고자 한다. 그럼 실존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일종의 존재-인간만이 가능한 고유한 존재방식을 의미한다. 실존의 한 가지 특징은 자기 초월이다. 즉 인간은 세계를 향해 자기를 초월한다. 54) 로고테라피나 실존분석은 인간을 보다 넓은 의미에서 자유롭게 해방시키고자 한다. 해방시키는 것은 곧 인간에게 자신의 책임성을 스스로 떠맡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실존분석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신체적 영역을 심리적 영역과 구분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리적 영역에서 영적 영역을 찾아내려고 한다. 55) 로고테라피는 정신분석에 비해서 덜 회고적이며 덜 내관적(內觀的)인 방법이다.

환자가 앞날에 충족시켜야 할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의미중심의 정신분석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환자는 로고테라피를 통해 자기 삶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시킨다. 따라서 환자가 이런 의미를 깨우칠 수 있게 도와주면 그 스스로 자신의 신경증을 극복하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Logotherapy는 인간의 영적차원에 초점을 맞추고 시작하는 특수한 치료법이다. 이 치료법에는 병의 진단을 3가지 차원에서 내리고 있다. 사실상 정신적 장애가 육체적, 심리적, 영적신경병으로 각각 분류될 수 없고 이것들은 뒤섞여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진단을 내리는 자유는 그 각 개인의 성격과 어느것이 기초적인가를 결정하자는데 있다. 56) 이런 관점에서 실존주의 치료법에 이탈되는 독자적인 치료법이 아니고 이들과 상호 보충하는 치료법으로서 인간을 전체성을 파악(把握)하고 의

53) Viktor E. Frankl, 「정신세계의 병리와 해부」, P. 265.

54) Viktor E. Frankl, 「심리요법과 현대인」, P.141.

55) Viktor E. Frankl, 「정신세계의 병리와 해부」, P.268.

56) C. H. Pattlerson, 「Theoriss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973」, P.437.

미와 가치에 초점을 두는 영적, 정신적 치료법이다.⁵⁷⁾ 그러므로 Logotherapy는 육체적, 심리적차원을 넘어서는 영적인 존재라는 특수한 인간현상의 차원속으로 인간을 끌어올리며 인간을 영적이며 철학적인 문제를 다루게 되는 것이다.⁵⁸⁾ 따라서 Logotherapy의 치료법은 인간에게 의미를 부여하여 책임을 인식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Logotherapy가 인간성을 정신적 차원에서 보면서 인간의 실존문제를 다룬 것은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큰 몫을 담당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개혁주의적 전인 치유사역의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비취 볼 때 예수는 전지전능한 말씀으로 환자를 치유하였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질병의 근원을 축출하였다. 무엇보다도 총체적인 전인의 회복을 이루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Logotherapy가 인간문제를 영적 차원까지 취급한 공적은 높이 인정하지만 총체적인 문제해결에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⁵⁹⁾ 또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 치유에 있어서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다는 것이다.

57) 사미자, 「Viktor Frankl의 인간 회복의 의미, 장로교신학대학원, 1974」, P.35.

58) Viktor E. Frankl, 「Psychotherapy and Existentialism」, P.72.

59) 김충렬, 「Logotherapy 원칙에 의한 군범죄 이해, 한국신학대학원, 1972」, P.93.

VI. 결론 및 제안

오늘날 현대인의 당면한 시대적 상황과 임상목회 교육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의 현실은 가치관의 혼돈과 맞물려 영혼의 병리적 현상이 급속도로 퍼져 결국 만성화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다. 바로 인간성 상실을 초래한 결과로 이기주의가 난무하므로 결국 자연 환경의 파괴와 인격의 훼손이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급기야 영혼의 병리 현상의 문제가 육신의 병리 현상의 문제로 파급되어 결국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학의 통계를 보면 쉽게 알수가 있다. 따라서 본 논고자는 결론에 즈음하여 임상목회 교육학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1,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의 삶을 통해 살펴볼 때에 첫째, 성장지향주의의 사회라는 것이다. 바로 오늘날의 사회는 고도 성장을 추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하여 국가 경쟁력이 있어야만 생존 할 수 있는 경제 전쟁의 시대이다. 따라서 개개인의 인격이 아닌 경제 성장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되어 결국 인간성은 갈수록 상실되어만 가고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비극으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총체적 전 인격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둘째, 물질 만능주의의 사회이다. 현대 사회의 가치 기준은 물질에 있으며 사람들의 인생 목표가 물질의 풍요로움에 있기에 이 사회의 구성원들은 물질에 예속되어 있다. 진정한 인격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물질에 노예가 된 이들을 치유하고 성장시켜야 한다.

2, 가치관의 혼란을 살펴볼 때에 첫째, 사회 윤리의 혼란과 질서의 대혼란이 야기 되고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오직 이익이라는 목적 아래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며,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사회적인 기준은 이미 오래 전에 사라져 버렸다. 내게 이익이 되면 그것이 선이요, 원리요 도덕이다. 그렇지 않은 것은 악이요, 비윤리요, 비도덕이고 급기야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질서까지도 무너져 버린 총체적인 집단 병리에 놓여 있다.

3, 방향을 잃은 삶을 살펴볼 때에 첫째, 흔들리는 삶의 목표가 만연하고 있

다는 점이다. 모든 이들은 구부러진 못처럼 인격이 훼손되고, 관계속에서 내면에 쌓인 불신으로 급기야 타인을 믿지 못하고 인생의 목표까지도 자기 이기주의에 근거한 삶을 추구하는 현실이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정신 문화도 비례하여 상승하여야 되는데 상처받은 이들에겐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정신 의학 분야에서 또한 일반 상담가들이 이것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만 전인의 문제로서 접근도 어려울 뿐더러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질 않는다. 한편 현대의학은 인간이해의 구조적 문제를 유물론적 사관에 기초한 과학적 인본주의에 빠져 버려 어떤 질병이라도 다 치료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지만 결국 인간을 기술적 측면에서만 접근하여 육신의 치료에만 급급하다보니 비인간화 현상을 유발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가운데 처해진 이들에게 하나의 대안은 무엇이겠는가? 비단 일반인들의 문제와 오늘날 교회안에도 내면세계의 아물지 않은 상처들로 인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아닌 환자가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분업화된 구조에 맞게 오늘날 인간의 문제도 세분화하여 상실된 인격의 문제를, 내면세계의 문제를 치료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지난날은 인간의 문제를 영혼과 몸으로 다뤘지만 이제는 전인치유 사역의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의 총체적인 전인의 치유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많은 치료법이 이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리고 일반은총의 자원으로, 관념의 차이로 나타나는 문제를 선을 분명히 그어 인본주의로 배격해서는 안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본 논고자는 이러한 문제를 전제로 하여 초창기 두 명의 현직 Medical Doctor 들이 이론중심의 신학교 커리큘럼에 이의를 제기하여 현장중심의 체험적인 임상목회 교육학을 도입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관념의 사고차이로 인한 인본주의적 임상목회 교육학의 오해된 부분을 오늘 우리의 실정에 맞는 성경적 개혁주의 상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온전한 전인격의 회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치유사역의 모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으며, 총체적인 전인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치료하였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 인본주의적 임상목회 교육학이 말하는 인간이해는 폭 넓게 하고 상담하는 것은 바

람직하나 이들이 전인을 치유하기엔 또 하나의 장벽이 있는데 바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치료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인 전인치유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육의 총체적인 전인치유는 성경적인 임상목회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특히 21C를 앞에 둔 상황에서 신본주의적인 임상목회 교육학의 정립이 필요하며, 실천신학의 한 분야로서 또한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이들은 심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질병의 사람들이며, 사람간의 관계의 문제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 있기때문에 임상목회 교육학의 필요성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參考文獻

國內書籍

- 김기복, 「임상목회교육」, 서울: 전망사, 1993.
- 에드워드 투르나이젠 「목회학 실천론」 박근원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7
- 허주, 「세계의학의 역사」, 서울: 지식산업사, 1987.
- 김춘배, “병원사”, 「병원관리」, 연세대학교대학원 보건학과편, 1987.
- Laverne Anderson, 「그리스도인의 바른이해」, 서울: 나침판사, 1991.
- 박형렬, 「전인치유사역의 현장과 실제」, 서울: 목회와 신학, 1983.
- 박형렬, 편저 「전인치유 사역」, 서울: 나임출판사, 1993.
- 이광자, 「정신건강 간호학」, 서울: 신광출판사, 1987.
- 안토니 A. 후크마 「개혁주의 인간론」 류호준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3.
- 박종철, 「기독교와 정신건강」, 서울: 그리스도와 의료, 1978.
- 이명수, 「치유선교론」 박형렬편저, 서울: 나임출판사, 1993.
- Paul Tournier, 「인간치유의 심리학」 황찬규역, 서울: 보이스사, 1977.
- M.T. 켈시, 「치유와 기독교」, 배상길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1.
- 존 터너, 「치유하는 교회」 김선도역, 서울: 도서출판사 광림, 1984.
- 스위스 힐트너, 「목회 카운셀링」 마경일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6.
- 원효식 교수, 「임상목회 교육학 강의안」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 루이스 벨콕, 「조직 신학」 제3권 인간론, 고영민역, 서울: 기독교문사, 1978.
- 헨리 디이슨, 「조직신학 강론」 권혁봉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5.